Life p/16

아웃도어 모델 '별들의 전쟁'

metro
메트로 2014년 9월 11일 목요일 제3052호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18

싸이-빅뱅 亞게임 가수로

"제2롯데월드 안전 믿을만한가" 종합방재센터에 쏠린 눈길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시전개방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종합방재센터 관계자의 안전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3일 제외) 제2롯데월드 저층부를 일반 시민들에게 사전개방해 안전 점검과 체험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한·미·중 스마트폰 新삼국지

삼성·애플 5인치대 시장 양강 구도에 중국 샤오미 하반기 공략 돌풍 예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을 놓고 한국과 미국, 중국이 新삼국지 시대를 개막했다.

그동안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 아이폰 출시 이후 전통 강호 노키아의 침몰과 MS의 노키아 인수로 한국의 삼성전자와 미국 애플의 양강 구도를 형성했었다.

하지만 중국이 품질은 뛰어나면서도 100~300 달러의 저렴한 스마트폰을 출시해 '황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 삼성 VS 애플 본격 경쟁

금 하반기 한·미·중의 대 혈투가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애플은 각각 '갤럭시노트4' '갤럭시노트 엣지'와 '아이폰6' '아이폰6 플러스'로 5인치대 스마트폰 첫 대결을 펼친다.

제상도 측면에서는 삼성이 한 발 앞선 모습이다.

애플의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는 LCD 패널의 '레티나 HD 디스플레이'를 채용했다. 아이폰6의 화면크기는 4.7인치며 해상도는 HD급(1334X750)이다. 아이폰6 플러스의 화면크기는 5.5인치며 해상도는 풀HD급(1920X1080)이다.

앞서 삼성전자가 발표한 갤럭시노트4의 디스플레이는 5.7인치 QHD 슈퍼아몰레드를, 갤럭시노트 엣지에는 5.6인치 QHD 플러스 슈퍼아몰레드를 채용했다.

그러나 두뇌 성능은 애플이 우세하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의 경우 애플은 64비트를 지원하는 A8칩을 탑재했다. A8은 아이폰5S에 탑재된 A7보다 처리속도가 25% 정도 빠르다.

삼성전자의 AP는 삼성 엑시노스 5433 옥타코어 버전과 퀄컴 스냅드래곤 805 버전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된다.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5433이 64비트 기반인지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단 네트워크 속도는 삼성전자가 앞설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노트4는 최고속도 225Mbps인 광대역 LTE-A, 150Mbps인 LTE-A를 지원한다. 아이폰6는 LTE-A까지 지원한다.

◆ 중국 올 4분기 추격전 가속

중국발 스마트폰은 글로벌 모바일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중저가 폰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전체 휴대전화 시장의 60%를 차지할 정도다. 중국 제조업체는 이 분야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오는 10월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 국내 시장도 '황색 돌풍' 영향권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애플'로 불리는 샤오미의 파장은 기대 이상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 내수 시장은 물론 인도 모바일 시장까지 장악한 샤오미폰(M4)은 5인치 풀HD 디스플레이와 전후면 각각 800만, 16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다. RAM은 3GB이며 3080mAh 배터리를 채용했다.

이처럼 하이엔드급 스펙임에도 가격은 40만원 대에 불과하다.

한편 일본의 소니는 새로운 스마트폰 '엑스페리아Z3'로 반격을 노리고 있다.

이 제품은 세계 최초로 플레이스테이션 4(이하 PS4) 리모트 플레이 기능을 탑재해 스마트폰에서 PS4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관련기사 13면>

/정성훈기자 ysw@metroseoul.co.kr

특정지역 10년간 5800억 투입

경기 북부 5개 시·군

낙후한 경기북부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계획이 추진된 지 3년만에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과했다. 수도권에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계획이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 관광 휴양시설 확충, 교통망 등과 관련한 사업비의 50% 이상을 국비로 지원받는다.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은 파주, 김포, 포천, 동두천, 연천 등 5개 시·군에 걸친 76.51㎢가 해당한다. 경기북부 전체 면적의 1.8%에 해당한다.

이 지역에 2014~2023년 10년간 31개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민간 자본 등 총 5886억원이 투입된다.

역사문화정비 12개 사업, 관광자원개발 11개 사업, 기반시설 지원 8개 사업 등이다.

연천 재인폭포에 공원이 조성되고 호로고루성(사적 제467호) 등 고구려 3대 성이 정비된다.

파주 두지 임진나루가 역사공원으로 탈바꿈하고 임진강과 한탄강 주변에 관광·연결·진입도로가 건설된다.

<관련기사 3면>

/용다혜기자 ydh@

"추석 특별판 보자"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용산역을 찾은 시민들에게 메트로 배포 도우미가 메트로 추석 특별판을 배포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임기 중>

의원 출판기념회 2회 제한

새누리당 책 정가판매·수익 공개 추진

새누리당은 로비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했던 국회의원 출판기념회를 임기 중 2회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정치 혁신 차원에서 출판기념회를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키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무성 대표가 지난달 20일 관훈토론회에서 "출판기념회는 분명히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탈세이다. 이것이 법의 사각지대"라며 개정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출판기념회 개선안으로 판매하는 책은 정가에 판매토록 하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1명이 30만원 넘게 책을 구입할 경우 기존의 고액 정치자금 후원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처럼 구매자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출판기념회를 통한 수익금을 국회의원 1명이 모금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 한도에 포함시키는 보완책도 거론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1인당 정치후원금 모금 한도액은 1억5000만원이며, 총선 대선과 같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최대 3억원까지 허용된다.

아울러 초청장을 제한적으로 발송하게 하고, 지나치게 많은 화환을 받는 것도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 /서다예기자 yeh@metroseoul.co.kr

'최초'보다는 '최고'가 우선돼야

기자 수첩
이 재 영
<경제산업부 기자>

최근 통신업계에서 '최초' 타이틀을 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세계 최초',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을 앞세워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불거진 KT와 SK브로드밴드간 IPTV 업계 초고화질(UHD) 셋톱박스 상용화 최초 타이틀 논란이다.

앞서 SK브로드밴드와 KT는 지난달 25일 자료를 내고 9월1일부터 IPTV 최초로 셋톱박스형 UHD 방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자사의 서비스 상용화가 최초라는 주장속에 지난 1일 동시에 'B tv UHD'' 올레 기가 UHD tv'를 상용화했다. 그러나 양사 모두 시간에 쫓겨 제대로 된 점검없이 상용화를 강행한 것이 드러났다.

최초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양사는 UHD 셋톱박스 초도물량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서비스 상용화에 나섰다. 전용 콘텐츠도 현저히 부족해 고객의 불만을 샀다.

고객은 '최초 서비스'보다 '최고 서비스'를 원한다. 반면 업체는 최초 마케팅에 목 맨 채 최고의 서비스 제공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

KT와 SK브로드밴드가 고객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최초 마케팅만 주력하는 사이 LG유플러스도 동일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마저 경쟁사를 따라잡는다는 명분으로 준비없이 서비스 상용화에 나선다면 결국 소비자를 두번 울리는 꼴이다.

최초와 최고, 어느 것이 우선돼야 할까. 다소 늦더라도 완벽한 준비를 마친 상황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소비자는 환영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가위 연휴에도 열린 위안부 문제해결 집회 10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서 김복동 할머니와 참석자들이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이산상봉·억류자 석방' 北에 촉구

"남북관계 개선에 전향적 입장 취해야"

한국과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향적 조치를 취할 것을 북한에 공식 촉구했다.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9일(현지시간) 오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글린 데이비스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와 면담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면담내용을 전했다.

황 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오늘 협의에서 북한이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국제사회와 진정으로 협력하고자 한다면 우선 비핵화에 나서야 하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전향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황 본부장은 특히 "한·미 양국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내 미국인 억류자 석방 등 인도적 문제에 북한이 전향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한·미 양국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유엔 총회 등 주요한 일정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다예기자

뉴스&뉴스

외교부, '6급 상당' 영사직에도 변호사 특채

● 외교부가 외교·통상 업무뿐만 아니라 영사 업무에도 변호사를 특별채용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외무영사직으로도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6급 상당으로 변호사가 외교부에 특채될 전망이다.

개성공단에 외국기업 유치 전담기구 설치

● 개성공단에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업무 전담 기구가 생긴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산하 기구로 외국인투자지원센터가 12일 문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어 구사 인력을 둔 외국인투자지원센터는 해외 홍보, 투자자 상담 등 개성공단 투자 유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운전병 성추행 혐의' 해병대 대령 무죄

● 자신의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2사단 참모장 오모(51) 대령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오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자 관피아법으로 대기업행 무산

19명 중 9명은 '불허'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을 지낸 고위공직자의 대기업 취업계획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좌절됐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취업심사를 요청한 퇴직공직자 23명 가운데 추가 조사를 위해 심사가 보류된 4명을 제외하고 19명을 심사해 퇴직 전 직무와 취업예정기업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9명의 취업을 제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에는 코오롱 임원으로 취업하려 했던 임성빈 전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이 포함돼 있다.

청와대 출신 고위직은 제도와 정책에 영향력이 지대하지만 계약이나 인허가의 직접 담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직무관련성 잣대를 모두 피해갔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자윤리위는 청와대 등 권력기관에 대해 직무관련성을 더 넓게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다예기자

연천 등 5곳 관광자원화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어떻게 개발되나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계획이 10일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도는 천혜 자연환경을 활용해 관광·휴양시설과 문화유적을 정비하면서 접근 도로를 추가 개설, 경기북부의 부족한 교통망을 확충키로 했다.

우선 연천·포천·파주·동두천·김포 등 5개 시·군에서 관광자원개발, 역사문화정비, 기반시설지원 등 31개 사업이 추진된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국비 2704억원, 지방비 2672억원, 민간자본 490억원 등 총 5866억원이 투입된다.

연계 진입도로를 개설하는데 사업비의 90%가 국비로 투입돼 교통망 특히 부족한 동~서축이 확충된다.

연천지역에는 가장 많은 11개 사업에 2472억원이 들어간다. 임진강 유원지와 재인폭포 공원이 조성되고 호로고루성(사적 제467호) 등 고구려 3대 성이 정비된다. 또 1·21 침투로가 역사공원으로 탈바꿈하고 이를 유적과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된다.

포천에는 총 1473억원 규모의 7개 사업이 추진, 한탄강 주상절리 등 경승지가 개발되고 승진훈련장이 안보관광지로 특화된다.

이 외에도 ▲파주 6개 사업, 818억원 ▲동두천 4개 사업, 768억원 ▲김포 3개 사업, 476억원 순으로 배정됐다. 도라전망대 이전, 율곡수목원 연계 관광도로 개설 등을 비롯해 각종 공원이 조성·정비된다.

특히 도는 특정지역을 역사·문화, 평화·안보, 생태·경관 등 3개 주제로 나눠 이야기를 개발할 계획이다.

역사이야기를 좇아 구석기시대(연천 선사 유적지)→삼국시대(파주 덕진산성)→고려시대(연천 숭의전)→조선시대(파주 임진나루)→구한말(연천 고랑포구) 등으로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연천 1·21 침투로와 포천 38선길, 파주 도라전망대 등에선 냉전시대 분단 현실, 안보현장 등을 체험하게 된다.

아울러 생태코스를 택하면 멸종위기 동물과 희귀식물 등과 천혜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숲을 걸으며 지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다.

/이범종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대통령 지하자금 관리자 사칭 12억 뜯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비선 권력기관 출자 등을 사칭, 투자금 명목으로 1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황 모 박오(55) 씨를 구속하고 자금관리책 류모(50)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압수한 5천억원권 위조채권과 금괴증서 등 모습. /연합뉴스

유병언 일가·측근 재판 내달 선고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에 연루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일가와 측근들에 관한 1심 재판이 다음 달 중으로 일괄 선고될 전망이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30여 명에 대해 다음 달께 일괄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횡령 및 배임과 범인도피·은닉 등 병합되지 않은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많다"며 "일부 피고인을 일찍 선고하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다른 피고인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아직 증거 조사나 증인신문이 끝나지 않은 다른 사건의 재판 진행에 맞춰 다음 달 말께 병입체 사건을 포함해 유병언 일가, 측근, 도피 조력자의 1심 재판을 모두 끝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인천지검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을 100일 넘게 수사해 유씨 일가와 측근 10명, 도피 조력자 13명 등 모두 34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29명은 구속 기소됐으며 나머지 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윤다혜기자 yd@

고향의 정 안고 다시 일상으로 추석연휴 마지막날인 10일 귀경하는 시민들로 서울역이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안전보건공단, 산업현장 점검나서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5일 인천시 서구 봉수대로에 위치한 원유정제처리업체인 SK인천석유화학을 방문해 현장점검 활동에 나섰다.

이날 방문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을 방문한 백 이사장 등은 SK인천석유화학 및 협력업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현장 안전 보건 작동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백 이사장은 비상조치계획과 작업안전수칙이 잘 적용돼 있는지를 살폈다.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사진 왼쪽 3번째)이 5일 SK인천석유화학(주) 현장을 방문, 연휴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을 점검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제공

백 이사장은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강화와 더불어 근로자 간 소통을 통한 현장 안전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평시 위기 때도 예비군 부분동원

국방부, 법령 정비 추진… 국군동원사령부 창설도

국방부가 전시나 전시전환 단계가 아닌 평시 위기 발생 단계에서도 예비군, 민간 차량 등 전력을 부분 동원할 수 있도록 국가동원제도의 개정을 추진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북한의 위협에 제때 대처하고 확전을 막기 위해 평시 '통합방위사태' 선포 때도 긴요한 전력을 즉각 동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가동원제도에서는 평시 통합방위사태 선포 때 예비군, 민간 차량 등을 동원할 수 없다.

통합방위사태는 민·관·군의 능력을 통합해 주요시설을 방호하고 적 침투를 막으며 침투한 적을 격멸할 목적으로 시·도지사나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 전시전환 단계가 아닌 평시 위기발생 단계에서도 발령할 수 있다.

군은 동원 지정과 관련, 13개 지역 단위로 구분하던 기존 방식 대신 최근 교통과 통신의 발달을 고려해 2개 권역으로 나눌 예정이다. 1권역은 서울, 경기, 강원 지역으로 1·3군사령부 예하 부대 위주로 지정하고, 2권역은 충청, 경상, 전라 지역으로 원 거주지 인근 부대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동원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전시동원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 직할로 동원전담기구인 '국군동원사령부(가칭)'를 2018년 이후 창설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충무계획(정부의 비상대비계획)에 따른 단계 중 '데프콘2'에 상응하는 '충무2종(전쟁위협이 농후한 단계)'에서 동원령이 가능했던 제도를 '데프콘3'에 상응하는 '충무3종(전쟁징후가 증가한 단계)'에서도 부분동원이 가능하도록 국가전쟁지도지침 등 관련 규정을 지난 2011년 수정한 바 있다.

/여현구기자 cyclone@

성신여대–카자흐 음악원 MOU 기념 공연

성신여대가 카자흐스탄 국립음악원과의 MOU 체결을 기념하는 연주회를 13일 오후 3시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사진) 대강당에서 무료로 개최한다.

성신여대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카자흐스탄 국립음악원과 교환학생, 교환교수·교환연주회 등 다양한 방식의 교류를 추진한다.

연주회는 방한 중인 카자흐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의 무대로 꾸며지며 카자흐스탄 국립음악원의 총장이기도 한 피아니스트 이니아 아브라키로바가 협연한다.

카자흐스탄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는 이날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9번 등을 연주한다.

엑기스·납골당… 일본식 용어 퇴출

법제처, 외래어 37건 정비하기로

엑기스, 납골당, 견습 등 우리나라 법조문에 남아있는 일본식 외래어에 대해 정부가 대폭 정비에 돌입한다.

10일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2개월 간 법령 전수조사를 통해 법률 36건, 대통령령 105건, 총리령과 부령 169건 등 총 310건의 법령에서 모두 37개의 정비대상 일본식 용어를 최종 확정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농지법 시행규칙 등에서 사용되는 '엑기스'라는 용어는 네덜란드어 '엑스트랙트(extract)'의 발음을 가져온 것으로서 '추출물'로 바뀐다.

일본 법률 용어를 그대로 가져온 '납골당(納骨堂)'은 뼈(골 骨)를 부각시키기 보다 '돌아가신 분을 모신다'는 뜻의 '봉안당'으로 대체된다.

학업이나 실무 등을 익힌다는 의미의 '견습(見習)'은 고유 일본어 '미나라이(みならい)'의 한자 표기를 우리말 한자음으로 읽은 것으로 '수습'으로 순화된다.

'레자'는 영어로 가죽을 뜻하는 레더(leather)의 일본식 표기에서 차용된 것으로 '인조가죽'으로 바뀌며, 영어의 재봉질 기계(sewing machine)에서 '머신(machine)'부분만 차용한 '미싱'은 '재봉틀'로 순화된다.

'간식선(間食線)'은 간식 선으로, '곤색(紺色)'은 감색으로, '사말(些末)'은 조사로, '연연조(延延朝)'를 연달계로 등으로 각각 대체된다.

정부는 이 외에도 붉은 선으로 지운다는 뜻의 '주말(朱抹)하다', 잠근다는 뜻의 '시건(施鍵)' 등 일상에서 잘 사용되지도 않고 뜻을 알기도 어려운 일본식 용어들도 정비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정비작업에서 '할샤(割賦)', '신병(身柄)'처럼 적절한 대체 용어를 찾기 어려운 외래어나 '개호비(介護費-간병비)'처럼 용어 변경시 기존 법리에서 정한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용어는 제외됐다.

법제처는 앞으로 법무부와 협의해 민법과 형법 등 기본법에 대한 정비 작업도 이어가는 한편 이번에 정비되는 용어들에 대해 내년 중 입법이 완료되거나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각 부처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창우기자 cyclone@metroseoul.co.kr

양식장에 밀려온 황토띠 10일 오전 경남 남해군 미조면 인근해상에 위치한 가두리양식장에 적조방제를 위해 뿌린 황토로 보이는 붉은 띠가 밀려와 있다. /뉴시스

굿 한 뒤 취업 못해도 환불 안돼

수백만원을 들여 굿을 한 뒤 취업에 실패했어도 굿 값을 환불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무속인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속 행위는 반드시 어떤 목적의 달성보다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이나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두고 무당이 굿을 지내달라고 요청한 사람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윤다혜기자

소금 뿌린 듯 하얀 메밀꽃 속으로 한국 단편소설의 백미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인 가산 이효석 선생의 문학 혼을 기리는 효석문화제(5~14일)가 열리는 강원 평창군 봉평면 효석문화마을 일원이 온통 소금을 뿌려 놓은 듯 메밀꽃이 한창이다. 추석 연휴를 맞아 관광객들이 9일 밤 메밀꽃밭을 거닐며 가을밤의 추억과 낭만을 만끽하고 있다. /연합뉴스

잡실공연장 대중교통 운행 늘린다

서울시 '바가지 택시' 근절 위해 대형 공연 시 노선 추가확대

서울시가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밤늦게까지 대형공연이 있을 때마다 '바가지 택시'로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이 늘자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대규모 공연이 오후 11시 이후에 끝날 경우, 잠실종합운동장을 지나는 26개 시내버스 노선 중 16개 노선의 예비차 31대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배차시간을 평균 12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면 최대 5000명을 수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고속터미널을 지나는 시내버스 중 2개 노선도 차고지를 기준으로 막차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연장하고, 예비차를 8대 추가 투입해 배차시간도 평균 9분에서 5분으로 단축한다.

운행 확대 대상 버스는 352번과 360번으로, 최대 600명을 수송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아울러 잠실종합운동장과 동서울종합터미널 간 순환버스를 행사 종료 전후 1시간씩 총 2시간 운행하기로 했다.

시 도시교통본부는 "지방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고속버스터미널, 동서울종합터미널 등과 시내버스 간 연계를 강화하면 바가지 택시도 자연스럽게 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윤다혜기자

'의사의 IMS 시술행위 침술과 방법 같으면 유죄'

근육에 침을 꽂고 신경에 자극을 줘서 통증을 완화하는 이른바 'IMS 시술'이 의료법상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정모(67)씨에게 일부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정씨가 환부위에 여러 대의 침을 놓았고, 그 침이 침술에서 통상 사용하는 침과 다른 바 없었다"며 "정씨의 IMS 시술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정형외과 의사인 정씨는 2010년 5~6월 환자에게 침을 놓는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료법은 의사가 한의사 면허 없이 한방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씨는 'IMS 시술'은 미국에서 개발된 통증 치료 방법일 뿐 한방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1·2심 법원은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다혜기자

나이트클럽 미세먼지 심각 외출금지 4배 이상인 곳도

서울시내에서 흡연이 허용되는 나이트클럽의 미세먼지(PM 2.5) 농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이기영 교수팀(곽수영·이보람)과 국립암센터 이도훈 박사팀은 지난해 10~11월 사이 서울의 나이트클럽 3곳 중 흡연이 완전히 허용되는 2곳과 별도의 흡연실을 둬 비교적 흡연이 제한된 1곳의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 측정한 결과, 최대 27.3배의 차이를 보였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손님이 몰리는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를 기준으로 흡연 나이트클럽의 주중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438.9㎍/㎥로 금연 나이트클럽의 16.7㎍/㎥에 비해 크게 높았다.

특히 흡연 나이트클럽 중 1곳은 주말 미세먼지 농도가 808.9㎍/㎥까지 치솟았다. 이는 일반인들도 외출을 삼가야 하는 200㎍/㎥ 이상의 4배가 넘는 수치다.

/윤다혜기자

"성범죄 교직원 48명, 버젓이 근무"

68%는 경징계에 그쳐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직원들이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여전히 교육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10일 각급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거 성범죄로 징계를 받고도 현재 일선 현장에서 재직 중인 지방공무원 신분의 학교 직원들이 전국적으로 총 4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9명, 부산 6명, 전북 5명, 전남과 경북이 각각 4명, 강원 3명, 광주 2명, 충남·경남·제주 각각 1명이었다.

성범죄를 저지른 학교 직원들이 받은 징계 수위를 보면 강등 2명, 정직 13명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15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감봉 7명, 견책 12명, 경고 9명, 주의 5명 등으로 총 33명(68.8%)이 경징계를 받았다.

박 의원은 "교원뿐 아니라 직원들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시는 학교에 발을 못 붙이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다혜기자

오바마 'IS격퇴' 전략 발표

시리아 공습 방안 주목 · 의회 승인없이 군사행동 결정할 듯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이슬람 수니파 무장 단체인 '이슬람국가'(IS)를 격퇴하기 위한 전략을 내놓는다. 이번 전략에는 이라크 내 IS에 대한 공습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IS의 거점이 있는 시리아에 대한 공습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잠채 연설을 한 뒤 IS 격퇴 전략을 공식 발표한다. 전략에는 우방과 군사연합을 형성, IS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전략은 이라크에서 미국민을 보호하는 '제한된 공습'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9일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AFP 연합뉴스

최근 IS가 미국인 기자 두 명을 잇따라 살해한 뒤 미국에서는 시리아 공습을 지지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이 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01명 중 시리아 공습에 찬성하는 비율이 65%였다. 미 정부가 이런 여론을 반영해 IS 격퇴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민주·공화 양당의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 IS 격퇴 전략의 기본 개요를 미리 설명했다. 이번 회동에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미치 맥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IS 격퇴 방안을 발표한 뒤 의회의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고 군사행동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식으로 대통령 독자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인도-파키스탄 홍수 400명 사망 9일(현지시간) 인도령 카슈미르의 주도 스리나가르 주민들이 트랙터를 타고 침수 지역을 빠져 나오고 있다. 최근 파키스탄과 인도 북부 접경지역 카슈미르 일대에서 1주일째 이어진 폭우와 홍수로 400여 명이 숨졌다. /로이터 연합뉴스

지하철에 '고양이' 그려 피소

metro Paris

파리 예술가 시민 응원

프랑스 파리에서 한 길거리 예술가가 파리교통공사(RATP)에게 고소를 당했다.

'고양이 아저씨'라 불리는 토마 뷔유는 파리 길거리에 노란 고양이를 그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지난달 6일 그는 그의 대표 캐릭터가 된 노란 고양이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파리교통공사가 토마 뷔유를 공공시설 훼손 혐의로 신고한 것이다.

파리교통공사는 샤틀레역에 고양이 낙서를 10여개 그렸다는 이유로 1800 유로(약 239만 원)를 요구했다. 돈을 내는걸 거부한 토마 뷔유는 다음달 24일 법정에 서게된다.

Chat VS RATP : le matou savior meube

이에 대해 많은 파리 시민들이 토마 뷔유를 응원하고 나섰다. 지난 4월엔 그의 선처를 바라는 청원운동에 총 1만2582명이 서명을 하기도 했다.

오를레앙 시장은 "파리는 예술의 도시다. 왜 예술을 장소와 형식에 국한하려 하는지 모르겠다. 그는 도시예술의 대표적 상징이다"고 주장하는 등 많은 정치 인사들이 그의 편에서 선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렐리 사르 기자 ·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서아프리카 에볼라 2296명 사망

라이베리아 희생자 가장 많아 ·· 국가 존립 위기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감염자가 6일 현재 총 4293명이며 이 가운데 2296명이 숨졌다고 9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식 발표했다.

국가별로는 라이베리아(2046명 감염·1224명 사망)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이는 서아프리카 5개국 전체 에볼라 사망자의 절반을 넘는다.

기니는 감염자 862명에 사망자가 555명이었고, 시에라리온은 감염자 1361명에 사망자가 509명으로 집계됐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아 라이베리아는 국가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고 브라우니 사무카이 라이베리아 국방장관은 밝혔다.

사무카이 장관은 "에볼라가 산불처럼 번지고 있다. 국가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다"고 최근 주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달 말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에볼라 고위급 회담을 열 계획이다.

/조선미기자

우울한 조선업계 '3중고' 직면

수익성은 뚝! 차입금은 쑥! 노조 파업까지

상반기 영업익 -2.7%… 2010년 이후 감소세

국내 조선사들이 수익성 저하와 차입금 확대에 이어 노조 파업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상반기 국내 상위 5개 조선사(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의 매출액에서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BITDA)이 차지하는 비중이 -2.7%로 전계됐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은 2010년 14.4%로 정점을 찍고서 2012년 7.3%, 2013년 4.9%로 하락세를 보였다. 경쟁심화와 선박가격 하락에 따라 상선 부문의 실적이 떨어졌고 해양플랜트 부문의 일부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해 조선사들의 수익성이 둔화됐다.

차입금 부담도 늘어났다. 6월 말 기준 조선사 5곳의 순차입금 규모는 16조3000억원으로 2010년 말(6조2000억원)보다 10조원 이상 증가했다.

다만 2분기 1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한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보유 자본증권을 활용해 차입금에 대응하고 있다. 적자 폭이 큰 삼성중공업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에서 차입금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장기 매출 채권과 관계사의 채권 회수 지연으로 차입금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2일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2014 임단투 조합원 보고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여기에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노조의 파업이 예고돼 암담한 상황이다.

19년 무분규 기록을 이어온 현대중공업 노조는 사측과의 협상 결렬로 지난 3일 파업을 위한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노조 측은 추석연휴가 끝난 후 파업을 위한 찬반투표 등을 거쳐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각오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노조는 없지만 이를 대체하는 노동자협의회가 있다. 노동자협의회는 지난달 14일 파업행의 투표를 실시해 조합원 84.7% 찬성으로 파업권한을 얻었다. 이어 지난 5일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의 93%가 반대해 부결됐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어쩌면 노사 갈등이 추석을 넘긴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올해 최악의 영업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국내 조선업계가 수익성 저하, 노사 갈등 등의 각종 악재로 난관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정은준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주택취득시 대출 연장 안돼

국민주택기금 대출기간 중에 주택을 취득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 임차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옮기거나 직계존속 소유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기한연장이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은행에서 취급하는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대출 기한연장과 관련, 갑작스러운 상환 요구에 소비자가 자금 마련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은행이 이런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지도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정책자금대출로서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대출 취급기준은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주거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엄격하다.

대출을 연장하려면 잔액의 10%를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 0.1%의 금리가 가산된다.

이 두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대출 기한연장을 할 수 없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은행은 대출을 신규 취급할 때에만 대출거래약정서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이같은 중요사항을 안내하고 기한연장시에는 사전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을 야기해왔다.

소비자들은 사전 안내 없이 갑작스럽게 상환 요청을 받고 상환자금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강주 금감원 금융민원실장은 "이에 따라 기한연장시 연장 불가 사유와 일정금액 상환이나 가산금리 적용 등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주요 유의사항을 은행이 만기 3개월 전 등 사전에 통보하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조한송기자 [illegible]

삼성, 뉴욕 패션위크 사로잡다 삼성전자가 4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간) 미국 뉴욕 링컨센터에서 진행되는 뉴욕 패션위크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다. 사진은 '갤럭시 노트4'의 셀피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사진을 찍는 모델들. /삼성전자 제공

SKT, 11일부터 영업정지

가입자 이탈 규모 촉각…관건은 알뜰폰

SK텔레콤이 11일부터 17일까지 순차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LG유플러스와 달리 SK텔레콤은 가입자 이탈 타격을 다소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영업정지 기간이 추석 연휴 직후로 성수기인데다 삼성전자가 지난 3일 출시한 '갤럭시 알파' 영향으로 피해가 다소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월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살포와 관련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주도사업자로 선정, 각각 일주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에 166억5000만원, LG유플러스에 76억1000만원(당초 82억5000만원에서 행정심판 통해 일부 삭감), KT에 55억9000만원 등 총 298억1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매겼다.

특히 SK텔레콤은 5~6월 시장조사에서도 불법 보조금 주도사업자로 꼽혀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성수기인 추석 직후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앞서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가입자 2만5640명을 경쟁사에 빼앗긴 점을 고려하면 SK텔레콤은 가입자 규모 면에서 볼 때 6만명 이상의 가입자 이탈이 예상된다. 삼성전자 '갤럭시 알파', '갤럭시 노트4'와 애플 '아이폰6' 등 전략 스마트폰 출시로 인한 경쟁사의 적극적인 새 고 마케팅이 이뤄질 경우 가입자 이탈 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변수는 얼어붙은 통신시장과 알뜰폰에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 LG유플러스 영업정지 기간에 가입자 이탈이 예상보다 적었던 점도 방하기에 접어든 통신시장이 한 몫 했다. LG유플러스 영업정지 기간 중 지난 2일의 번호이동 건수가 가장 높았는데 1만3190건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가 시장 과열 지표로 삼는 2만4000건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재영기자 [illegible]

---

market index <5일>

지표	지수	등락
코스피	2048.41	(-6.83)
코스닥	572.37	(+3.47)
금리	2.51	(-0.03)
환율	1025.80	(+7.00)

뉴스&뉴스

SKT 찾아가는 구인 프로그램 SK텔레콤은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리쿠르팅 프로그램 '잇츠 유(It's You)' 행사를 지난달 25일부터 1박2일간 여런 연수원에서 진행했다. /SK텔레콤

한국 고령화 속도 1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지난 40여년간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9일 OECD 34개 회원국의 인구구조를 비교·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2013년 기준 한국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은 12.2%로 30위에 머물렀지만 증가 속도는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관광주간 휴가사용 권장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회원사 협조공문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 중인 가을 관광주간(25일부터 10월5일)에 임직원들의 휴가사용을 장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경련 이상호 산업정책팀장은 "관광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취약한 내수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주간에 많은 회원사들이 동참해 최근 둔화조짐이 있는 국내관광에 활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연금복권520 제167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20년	7조	587038
		5조	788538
2등	1억원	1등의 앞뒤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800551
4등	100만원	각조	33096
5등	2만원	각조	412
6등	2000원	각조	39 49
7등	1000원	각조	4 2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illegible]
TEL 02)721-9800, FAX 02)730-1551
회장 겸 발행인 [illegible]
사장 겸 편집인 [illegible]
편집국장 [illegible]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illegible] 서울특별시 가00[illegible]

한은, 9월 기준금리 동결하나

시장전문가들은 오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2.25%)에서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진입 논란이 일고 있는데다 2분기 경제성장률까지 부진하게 나오자 10~11월 중 금리가 한 차례 더 인하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지난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추가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축소됐다"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어 추가 인하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주열(사진)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켜보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

눈에 띄는 경제지표 변화보다는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린 만큼 심리가 어떻게 바뀔지, 가계부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지난 2001년 IT버블 붕괴 시기,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달아 내렸던 적은 없다.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전문가 11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96.5%가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그러나 한은이 올해 안에 금리를 한 차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통위의 주요 참고지표 가운데 하나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한 데다 저물가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은이 지난 4일 발표한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잠정치)은 0.5%로 7분기 만에 가장 낮았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10월 수정 경제 전망시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를 낮추고 11월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민지기자 minji@

"카드시장, 돌파구 찾아라"

구리·나무 등 디자인 혁신…각종 혜택으로 고객잡기

가로 8.6㎝, 세로 5.35㎝. 전세계 어디든 똑같은 모양을 한 카드가 변신을 꾀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들은 카드 플레이트(실물) 소재 다양화와 디자인의 차별화를 통해 고객잡기에 나섰다. 포화상태에 접어든 신용카드 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영업전략으로 분석된다.

현대카드는 동전을 재구성했다. 구리 합금으로 된 신소재 '코팔(Coppal)' 플레이트를 선보인 것. 프리미엄 카드(the Black the Purple the Red)에 적용된 코팔은 강도가 높고 무게감이 있으며 가공하기 용이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현대카드는 코팔이 구리 합금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구리는 기원 전 6세기 무렵 리디아(현재 터키)에서 처음 등장한 동전(銅錢)의 주 원료로, 금속 화폐의 최초 원료이자 지금도 동전 주조에 널리 사용되는 물질이기 때문이다.

우리카드는 신용카드 수준의 할인과 포인트 적립 기능을 갖춘 '가나다' 체크카드 2종을 출시하며 카드에 친환경 소재인 나무를 사용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가나다 체크카드는 업계 최초로 카드 플레이트에 친환경 나무 소재를 사용해 나뭇결의 고유한 무늬를 살려 차별되는 디자인을 선보였다"며 "나무 소재는 플레이트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 유해 물질을 실제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우리카드는 전국 720여개 녹색 유기농 매장에서 친환경 제품 구입시 최대 19%까지 에코머니 포인트도 적립해준다.

삼성카드는 카드가 가지고 있는 혜택을 플레이트에 새겨 넣었다. 이를 통해 고객은 각각의 카드가 가지고 있는 혜택을 잊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밖에 하나SK카드는 VVIP용인 '퍼스트 클래스 체크카드'의 앞면을 비스듬히 쥐고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달라 보이는 시변각 잉크를 사용했다. SC은행은 겨울왕국이나 미키마우스 등의 캐릭터를 새겨 넣어 차별화했다.

/박미은기자 albe0203@metroseoul.co.kr

"한국 금융교육 걸음마 단계"

수능 응시자 중, 경제 과목 지정학생 5% 안돼

금융가 사람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금융교육을 의무화하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다. 한국은 이제 민간교과서를 만드는 단계에 들어섰으므로 앞으로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더 잘 각인할 필요가 있다."

김자봉(사진)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영국이 이번 달부터 금융교육 의무화를 시행 중이며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 등 대부분의 금융선진국도 의무교육화했거나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점진적 방침 아래 수년 안에 의무 금융교육은 국제적인 추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의 금융교육은 열악하거나 전무한 실정이다.

그는 특히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현 경제교과서를 보면 마지막 부분인 6단원에만 '금융'이 할당됐다"며 "또 수능 응시자 60만명 중 경제를 선택과목으로 지정한 학생이 5%도 넘지 않아 사실상 대다수가 고등학교 때 경제를 배우지 않고 사회에 진출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아직 국가 단위에서 추진되는 바가 없어 현재 금융연과 서울대학교가 함께 민간 차원의 중고교 교과서를 만들고 있다"며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상당히 좋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금융지식과 수학을 접목하는 내용으로 구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OECD에 따르면 개별 국가 학생들의 금융 역량은 수학 교육에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OECD가 시행하는 국제 학업성취도 비교평가인 피사(PISA)에서 상위권을 점하는 우리나라 학생들도 체계적인 교육만 제공되면 충분한 금융자질을 갖출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학생들의 수학·금융 역량은 그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피사의 수학 점수 25점이 잠재적으로 6조 달러의 경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현 미국 교과서는 최근 경제 흐름을 발빠르게 반영해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과 분석까지 자세하게 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저축계좌를 보유한 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높은 것으로 나오는 등 금융교육이 학생의 학습의지 향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의 금융교육의 방식과 내용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현정기자 hjkim@

하나은행, 인천AG 입장권 2억원 구매 하나은행은 인천시와 아시안게임 2억원 구매에 따른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일 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김종준 하나은행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하나은행 제공

금감원, 보험사 상시 모니터링 강화

MEV 체계 구축 외형 늘리기 상품 역풍 막게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내실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내재가치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MEV (가칭)' 체계를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필요시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회사가 내실 위주의 경영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MEV 분석결과 이상징후가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는 소명을 요구한 뒤 이사회 보고 또는 임직원 성과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최근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일부 보험회사의 외형 불리기용 상품이 역풍을 불러온 데 따른 조치다.

실례로 90년대 판매된 고금리 금리확정형 개인연금보험은 수십년간 6.5%~8.5%의 고금리를 확정보장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금리가 하락하면서 운용자산이익률이 지난해 연 4.6%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다수의 생명보험회사들은 연간 23억~980억원에 달하는 이차율차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일부 손해보험회사는 200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정을 앞두고 대거 절판 마케팅으로 상품을 판매했다가 현재 손해율이 150% 수준까지 주저앉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회사들이 과거 팔았던 상품들로 인해 회사의 중장기적 내재가치(EV)가 하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단기 실적 개선을 위해 장기적 내재가치가 훼손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조기에 이를 감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MEV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보험회사의 내재가치는 실질 자본가치인 순자산가치와 장래 이익금의 현재가치인 보유계약가치로 구성된다.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장기 계약을 보유한 보험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로 기업공개(IPO)나 합병(M&A)등 진행할 때 주로 활용된다.

/김형석 기자 khs84041@

증권사 불황에 구조조정·소송 '몸살'

1년새 4100명 감원 ·13개사 행정소송 패소

수익 악화로 고전하는 증권업계가 구조조정과 각종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력 감축 및 지점 통폐합은 물론 잇따른 행정소송 패소로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재벌닷컴이 매출 상위 28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영업점과 직원 변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 직원 수는 3만3091명으로 1년새 4134명(11.1%) 줄어들었다.

국내외영업점(지점·출장소·사무소)은 1344개로 1년 전보다 229개(14.6%) 감소했다.

증권사별로는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이 1년 새 영업점을 30개 이상 축소했다.

동양증권의 영업점도 118개에서 90개로 28개 줄어들었고 현대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17개씩, 메리츠증권은 15개, 하나대투증권과 HMC투자증권은 11개씩 감소했다.

이어 동부증권이 9개, 대신증권 8개,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6개씩, NH농협증권은 5개, 신한금융투자·신영·부국·대우증권은 각각 4개씩 영업점을 줄였다.

영업점 축소 등으로 조사 대상 28개 증권사 중 23개사의 직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삼성증권의 직원 수는 지난해 3194명에서 올해 2263명으로 931명 감소했고 동양증권은 903명 줄어든 1665명으로 3분의 1이 회사를 떠났다.

또 한화투자증권 514명, 대신증권 503명, 우리투자증권 344명, KTB투자증권 223명, SK증권 119명, 하나대투증권 118명, NH농협증권 110명 등의 인원을 감축했다.

설상가상으로 각종 분쟁과 소송까지 겹쳐 난관에 봉착했다.

10일 재벌닷컴 조사 결과 국내 증권사들의 직원 수가 지난 6월말 기준 3만3091명으로 1년새 3134명(11.1%) 줄고, 영업점도 1344개로 1년 전보다 229개(14.6%) 감소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현재 소송이 가장 많이 걸린 증권사는 불완전판매로 한바탕 홍역을 앓은 동양증권(72건)이다.

증권사 간 진흙탕 싸움도 볼썽사나운 지경이다. HMC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은 지난 6월 중국 기업으로 국내 상장했다가 상장폐지된 고섬의 투자 손실을 물어달라며 KDB대우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현대증권은 지난 3월 불법 신탁운용 관련, 신한금융투자에 손해 소송을 청구했다.

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 행정소송을 건 증권사 15곳이 재판에서 잇달아 패소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판결이 난 우리투자증권을 포함, 한국투자증권·대우증권·삼성증권·현대증권·신한금융투자·농협증권 등 13곳은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채권 수수료를 담합해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공정위에서 과징금 192억원을 부과받은 결정에 불복 소송했으나 줄줄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 가운데 일부 증권사는 대법원 상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공정위 입장 역시 워낙 강경해 패소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고객들의 소송이 걸릴 경우 회사 브랜드 이미지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높아 이처럼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중기자 h.kim@metroseoul.co.kr

상장사, 자회사 실적 따라 '희비'

21개사 흑자 vs 25개사 적자

상반기 상장기업의 실적이 자회사에 따라 좌우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기업 중 21곳은 자회사의 실적 호조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반면, 25곳은 자회사 실적 부진에 적자로 돌아섰다.

한국거래소는 10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자회사를 보유한 569개사의 올해 상반기 연결 재무제표와 별도 재무제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자회사가 반기 순이익을 기록한 기업은 330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본사는 반기 순손실을 기록했으나 자회사 실적 덕분에 흑자가 된 기업이 21곳이었다.

한국전력공사는 별도 재무제표상로는 5429억원 적자를 보였지만 연결 재무제표상에선 7528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태광산업 역시 별도 기준 186억원 적자에서 연결 기준 511억원 흑자로 돌아섰고 LG이노텍(-88억원→600억원)도 마찬가지였다.

본사 적자 규모가 자회사로 인해 줄어든 곳도 40곳이었다.

고려제강의 경우 전체 순이익에서 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97.9%(2726억원)에 달했고 본사는 55억원에 그쳤다.

할라코리아(88.7%), 삼성엔지니어링(87.8%), 이건산업(87.8%)도 자회사 순이익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25곳은 본사가 반기 순이익을 냈으나 자회사의 손실 여파로 적자로 돌아섰다.

GS건설은 별도 재무제표에서 316억원 흑자였지만 연결 재무제표로는 257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삼성중공업(1133억원→-664억원)과 한화(586억원→-2063억원)도 마찬가지였다.

자회사 손실의 타격으로 반기 순이익이 감소한 기업은 139곳, 순적자가 확대된 기업도 71곳이었다.

/김현정기자

KB 임 회장, "금감원 중징계 납득 못해"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영록 KB회장 '중징계 원안' 통과될 듯

도덕성·위상 치명적 타격 … 회복 어려운 상황

금융위원회가 오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중징계(문책경고)를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원 상당수가 임 회장이 금융지주 회장으로 도덕성과 위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회복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중징계안 의결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 회장은 징계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지주회장으로서 제 역할을 한 것이 범죄행위로 간주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금감원장, 기재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위원장 추천 2인,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1인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정부측 인사가 과반을 넘어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금융감독원 제재심의 경징계 결정을 지난 5일 중징계로 상향한 최수현 금감원장의 결정은 원안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에 이어 임 회장마저 중징계 결정이 확정되면 KB는 두 수장이 감독당국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동시 중징계를 받는 오점을 남기게 된다.

이에 따라 임 회장에 대한 퇴진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미 이 전 행장이 사임한 상태에서 혼자 버티겠다는 모양새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다.

그러나 임 회장은 명예회복을 벼르고 있다. 자주사가 자회사의 주전산시스템 변경계획을 관여할 수 있고 회장이 IT본부장 인사 교체 문제를 행장과 논의할 수 있는데 이를 범죄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5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소명을 했고, 제재심의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을 해서 경징계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주 동안 상황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는데 최종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며 억울하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직원들 마음을 안정시키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말해 당분간 사퇴보다는 경영에 매진할 뜻을 밝혔다.

/김은기자

하반기 360명 채용

신한은행은 올 하반기 청년채용을 비롯해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총 360명 규모를 채용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청년채용은 ▲일반직 200명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30명 ▲장애인·보훈 특별채용 30명 등 모두 260명 규모다. 이는 전년도 하반기보다 약 74% 증가한 수치이다.

앞서 지난 상반기 이미 100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한 신한은행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고졸 공채를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보훈 특별채용 역시 상하반기 각 1회 정례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채용부터 자격증, 어학 등 스펙 기입을 없앴다.

/박미선기자 alive0203@

포르쉐 911 타르가 vs 재규어 F타입

비교 車 vs 車

포르쉐 911 타르가4S ★★★★☆(평점은 별 다섯 개 만점 ☆는 1/2)
우레보다 빠르고 컨버터블보다 덜 [illegible] 스포츠카의 지존

재규어 F타입S 컨버터블 ★★★★(평점은 별 다섯 개 만점 ☆는 1/2)
자극적이고 개성 넘치는 '新星' 고속 핸들링은 아쉽다

수입차시장 성장 속 고성능 스포츠카 속속 등장
스포츠카 지존에 도전장 내민 개성 넘치는 '新星'

국내 수입차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고성능 스포츠카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과거 포르쉐와 BMW, 메르세데스 벤츠가 군림하던 이 시장에 새로운 모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 2013년 서울모터쇼를 통해 국내에 처음 소개된 재규어 F타입도 바로 그런 차종의 하나다. 60년대 명차 E타입의 아이덴티티를 물려받은 F타입이 상대할 차는 포르쉐 박스터와 911, 아우디 R8 등이다.

F타입의 중심 모델인 F타입S는 포르쉐 911을 최대 경쟁자로 삼고 있다. 국내 판매실적을 보면 지난 8월까지 포르쉐 911 시리즈는 203대가 팔렸고, 재규어 F타입 시리즈는 52대가 팔렸다. 911은 모델 종류가 많고 마니아층이 두꺼워 아직은 재규어보다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자는 최근 재규어 F타입의 라이벌인 포르쉐 911 타르가4S를 시승할 기회가 생겼다. 타르가는 차체에서 지붕만 떼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1965년 1세대 911에 처음 적용됐다. 1994년부터 2011년까지는 대형 글라스 루프가 뒤로 미끄러져 열리는 방식을 썼지만 이번 모델에는 1세대와 유사한 디자인의 소프트톱이 사용됐다.

소프트톱의 장점은 ▲루프 자체의 무게가 가볍다는 점과 개폐 시간이 짧다는 것 ▲개폐 전후의 무게 배분이 비슷하다는 것 ▲루프 수납공간이 크지 않다는 것 등 다양하다. 대신 평상시에 하늘을 볼 수 없고 부분 개방이 불가능한 것이 단점이다.

911 타르가4S는 루프를 열거나 닫을 때 19초가 소요된다. 느린 편은 아니지만 빠르지도 않다. 이는 라운드 타입의 뒤 유리가 올라간 후 지붕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뒤 유리가 올라가는 과정이 없는 재규어 F타입은 12초면 끝난다.

911 타르가4S는 지붕 수납공간이 추가됐지만 쿠페의 보조 뒷좌석은 살려냈다. 이 공간은 유아용 시트를 놓거나 반려동물을 태울 때 유용하게 쓰인다. 반면 F타입 컨버터블은 운전석 뒤 공간이 없다. 911은 엔진이 뒤쪽에 있어서 후드 안에 125ℓ의 트렁크가 마련되어 있으나, F타입은 엔진이 앞에 있고 루프 수납공간 때문에 트렁크가 매우 작다. 수납공간의 활용성에서는 911 타르가4S의 완승이다.

인테리어 품질은 두 차 모두 훌륭하다. 911이 정돈된 이미지라면 F타입은 화려함에 초점을 맞췄다. 911이 T자형의 대시보드를 쓴 반면에 F타입은 센터페시아 오른쪽에 기둥을 더해 운전석과 조수석을 구분하고자 했다.

두 차의 스펙은 막상막하다. 911 타르가4S는 최고출력 400마력, 최대토크 44.9kg·m이고 F타입S는 최고출력 380마력, 최대토크 46.9kg·m을 낸다. 911 타르가4S가 수평대향 6기통 3.8ℓ 자연흡기 엔진을 장착한 데 비해 F타입S는 V6 3.0ℓ 슈퍼차저 엔진을 얹고 있다. 911 타르가4S는 4륜구동, F타입S는 후륜구동을 채택한 것도 차이점이다.

배기음은 두 차 모두 강렬하다. 마치 맹수가 포효하듯이 으르렁대는 배기음은 질주본능을 강하게 자극한다. 타르가 시승차의 패들시프트는 스티어링 휠 손잡이 좌우에 달려 있고, 손가락으로 밀면 시프트 업, 당기면 시프트 다운이 되도록 됐다. 개인적으로는 왼쪽 시프트 다운, 오른쪽 시프트 업 방식으로 된 라인을 더 선호한다.

F타입은 재규어의 다른 모델들에 채택한 원형의 드라이브 셀렉터 대신 스포츠 시프트 셀렉터를 장착했다. 기어 레버에서 느낄 수 있는 특유의 손맛을 중시한 것. 기어 레버 옆에는 레이스 모드 또는 스노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스위치가 마련돼 있다.

가속성능을 좌우하는 최대토크는 F타입이 더 높지만 0→100km/h 가속시간은 911 타르가4S가 4.4초, F타입S는 4.9초로 911이 앞선다. 이 차이는 포르쉐 PDK와 재규어의 8단 자동변속기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수동보다 빠른 PDK는 홀수단과 짝수단을 순식간에 넘나들면서 엔진출력을 재빠르게 전달해 주는 일등공신이다.

핸들링은 두 차 모두 뛰어난 편인데 4륜구동 방식의 911 타르가4S가 근소하게 우월하다. F타입은 한계속도(275km/h)에 가까워질수록 약간 불안해지는 반면 911은 직진과 코너링 모두 매우 안정된 컨트롤을 보였다. 타르가4S에 토크 벡터링 시스템이 기본 장착된 반면에 F타입에는 고성능 R모델에만 장착된 탓이기도 하다.

전반적으로 911의 성능이 F타입보다 낫지만 가격 역시 911이 훨씬 비싸다. 911 타르가4S의 기본 가격은 1억5850만원이고 F타입S는 1억1910만원이다. 여기에 옵션이 추가되면 가격이 훌쩍 올라간다.

911 타르가4S에는 약간 못 미치는 느낌이었다. F타입 후속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기대된다.

/정의혁기자 ferrari6@metroseoul.co.kr

'추석 친환경운전 이벤트' 성료

kt렌탈(대표 표현명)의 렌터카 브랜드인 kt금호렌터카가 환경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친환경운전 추석 이벤트'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kt금호렌터카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주요 10개 지점에서 렌터카 대여 고객에게 친환경운전 안내책자와 햇빛가리개를 증정하고 친환경운전 실천방법을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kt금호렌터카 강남·고속터미널·서울역·부산역·대전 동대구·경주·목포역·여수공항·제주오토하우스 10개 지점에서 진행됐다.

윤종진 1MC본부장은 "운전자의 작은 실천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친환경운전을 널리 알리고자 환경부와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kt렌탈은 카셰어링 서비스인 그린카를 운영하며 공유경제의 친환경 문화확산에 앞장서고 있다"고 전했다.

/김태균기자

한전부지 입찰 최저가 비공개

감정가 훨씬 웃돌 가능성 커 주목

서울 강남 요지에 있는 한전부지 입찰 마감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전이 입찰 최저가를 밝히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한전은 오는 17일 오후 4시까지 입찰을 진행한 뒤 최고가격을 써낸 입찰자를 18일 오전 10시 낙찰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전은 지난달 29일 서울 삼성동 본사 부지 매각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면서 감정평가액(3조3346억원)만 공개하고 입찰 최저가(예정가격)는 밝히지 않았다.

한전은 감정평가액을 바탕으로 예정가격을 정해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2개 이상 응찰자 가운데 최고가격을 써낸 곳을 낙찰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감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최고가 입찰을 해도 한전이 내부적으로 정한 예정가격보다 낮으면 유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컨대 한전이 내부적으로 3조7000억원을 예정가격으로 정했다면 A기업이 3조5000억원, B기업이 3조6000억원으로 응찰했을 경우 입찰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한전부지 감정평가액이 입찰 하한가로 잘못 알려진데다 입찰가격이 예정가를 밑돈 것을 우려한 참가자들이 감정가격을 훨씬 웃도는 가격을 써낼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한전의 입찰 하한가 비공개 방침이 땅값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한전이 서울시의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근거로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됐다고 가정하고 감정평가를 의뢰한 만큼 예정가격이 감정가격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한전부지는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주영기자

"칫솔로 움직이는 로봇 만들어요"

글로벌 이코노미
/조선미기자 seonmi@

최근 중국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로봇 제작 등을 가르치는 학이테크 교육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이 전했다.

교육 업체 '크레티카'의 조안니 웨이 대표는 "과거 중국에서는 전통적인 암기 위주의 학습법이 주류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에는 창의력을 강조하는 체험 학습이 중국 부모들 사이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크레티카는 최첨단 기술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접목시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은 칫솔(투스 브러시)로 로봇을 만드는 '브러시봇' 수업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칫솔에 직접 전동 모터를 달아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말하는 친구를 만드는 '토킹 버디' 수업도 인기다. 두꺼운 상자로 캐릭터 인형을 만들고 소형 녹음기를 연결하면 토킹 버디가 완성된다.

웨이 대표는 "2011년부터 첨단

中 어린이 하이테크 교육 열풍…주입식 염증 부모 창의성 수업 찾아

기술을 이용한 만들기 수업이 생기기 시작했다"면서 "지난해 베이징에서 사업을 시작할때만 해도 지금처럼 폭발적인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십 만명이 각종 워크샵과 만들기 수업에 참가했다"고 덧붙였다.

크레티카는 주1회, 격주 1회 각각 오전반과 종일반 강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반나절 수업의 경우 550 위안(약 9만원), 하루 수업의 경우 1100 위안을 받는다. 종종 '가족의 날' 행사를 마련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수업을 받는 시간도 마련한다. 별도의 추가 비용은 없다.

크레티카는 '메이커 운동'의 산물이라고 웨이 대표는 설명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메이커(생산자)가 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발명품을 만들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싶었다고 했다. 메이커 운동은 소비자가 생산자가 돼 첨단 기술로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쓰는 것을 말한다. 최근 미국과 유럽 각지에서는 3D프린터 제품 등 메이커 관련 사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토플 등의 영어시험을 준비해 주는 입시학원과 피아노와 바이올린 레슨을 해주는 음악학원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염증을 느낀 부모들이 늘면서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수업이 점점 주목을 받고 있다.

량오닝성 다롄 지역의 학부모는 "마을에는 창의력 수업 도구로 쓸 수 있는 것이 레고 블럭밖에 없다"며 "아이에게 제대로된 창의력 수업을 받게 해주려고 베이징까지 왔다"고 말했다.

웨이 대표는 크레티카의 교육 프로그램이 소수 부유층 학생들에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정부와 당국의 도움을 받아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그는 "중국에서 스티브 잡스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면서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과학, 기술 수업을 통해 발명가로서의 재능을 살리면 중국에서도 머지않아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상파울루에서 토론회에 앞서 치러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뉴시스

무디스, 브라질 신용등급 '부정적'

강등 가능성 시사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브라질에 국가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시사했다.

9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무디스는 이날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수정했다. 무디스는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투자자 신뢰 하락과 공공부채 부담 가중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무디스가 평가한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은 위에서 두 번째인 'Baa2'다. 피치가 평가한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도 무디스와 같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지난 3월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강등하고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제시했다. 'BBB-'는 투자등급 중 가장 낮은 것이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브라질의 성장률은 2011년 2.7%, 2012년 1.0%, 2013년 2.3%였다.

올해는 이전 분기 대비 성장률이 1분기 마이너스 0.2%, 2분기 마이너스 0.6%를 각각 기록했다. 브라질 경제가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는 기술적 침체에 빠진 것은 세계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2009년 이후 처음이다.

브라질 중앙은행이 전날 발표한 주례 시장동향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48%로 나왔다. 일부 민간 전문가는 올해 '제로 성장'을 점쳤다. /김민지기자 minji@

생일 맞은 KFC 할아버지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켄터키프라이드치킨(KFC) 관계자들이 창업자 커넬 샌더스의 생일을 기념 시민에게 치킨과 기념품을 나눠주고 사진 촬영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AP 뉴시스

아마존 '파이어폰' 공짜폰 공세

아마존 '파이어폰'이 공짜폰을 무기로 독일 영국 공략에 나선다.

씨넷은 세계 최대의 온라인 소매업체인 미국 아마존이 자체 개발 스마트폰인 '파이어폰'을 독일과 영국에서도 출시했다고 9일 보도했다.

아마존은 이와 함께 미국 내 판매 가격도 인하, AT&T에 2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대당 199 달러였던 기기를 1달러에 제공한다. 무약정 판매 가격도 종전 649 달러에서 449달러로 낮췄다.

아마존은 독일과 영국에서도 유사한 가격 정책을 펴기로 했다.

특히 독일에서는 도이체 텔레콤과 제휴해 파이어폰을 1 유로에 제공하며 영국에서는 O2와 약정을 맺은 소비자들에 한해 '공짜폰'으로 제공한다.

아마존이 지난 6월 선보였던 파이어폰의 가격을 인하하면서 공세적 마케팅에 나선 것은 애플의 아이폰 신모델 출시가 임박하는 등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국명기자 kmlee@

삼성·LG·애플 '손목 위의 전쟁' 본격화

헬스·SNS·이메일 등 장착 · 디자인·기능 경쟁

애플과 삼성·LG전자의 주도권 싸움이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워치로 확대되고 있다.

초기의 스마트 워치 제품과 비교하면 디자인이나 기능에서 진일보한 모습이다. 스마트폰 보조기구에 머물던 스마트 워치가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고 온전한 제품력을 갖추고 있다.

올 하반기 스마트기기의 화두로 급부상한 애플과 삼성전자·LG전자의 스마트워치는 비슷한 기능을 탑재했다. 심박동·가속도·GPS·자이로스코프 등 측정 센서부터 음성명령 기능, 스마트폰의 메시지 및 전화 송수신 기능, 운동량 측정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차이점을 찾는다면 이같은 기능을 구현하는 사용자 환경(UI)이다. 삼성전자가 시계보다 독립적인 스마트 기능을 초점에 맞춘 반면 LG전자는 가볍고 둥근 클래식 시계 그 자체를, 애플은 개인을 위한 맞춤형 기기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기어S'가 시계는 물론이고 스마트기기로서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어S는 스마트폰 없이도 음성통화나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수신되는 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메일, 부재중 전화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 답장도 할 수 있다. 손목 위에 또 하나의 스마트폰을 장착한 것이다.

반면 애플은 스마트워치에 적합하도록 UI를 개선했다. 아날로그 손목시계에 붙어있는 용두를 '디지털 크라운'으로 활용해 화면을 확대·축소하거나 스크롤 하도록 했다.

(왼쪽부터) 손서이(刊) 삼성전자 기어S, LG전자 G워치R, 애플워치

또 시계 본연의 기능도 강조했다. 애플은 세계 표준 시간으로부터 50밀리세컨드의 오차 범위 내에서 정확히 구동된다는 설명이다.

애플은 디스플레이 크기 자체를 두 가지(38㎜, 42㎜)로 내놓고 소재를 달리해 스테인리스 스틸, 산화피막 알루미늄, 18K 로즈 골드와 옐로 골드 등 3가지로 출시했다. 시곗줄도 고성능 탄성중합체의 스포츠 밴드, 마그네틱 스테인리스 스틸 그물망 등 다양하다. 시계 화면으로 11종을 기본 탑재해 사용자의 취향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LG전자는 '완벽한 원형'의 스마트시계 'G워치 R'을 선보였다. G워치 R은 안드로이드 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G워치와 주요 기능은 유사하니 아날로그시계에 근접한 원형 디자인에 힘을 실은 모델이다. 다만 'G워치R'는 안드로이드 4.3 이상의 스마트폰에 연동해야만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기어S와 같은 독립형 제품이 아니다.

이외에도 에이수스는 커브드 디스플레이 적용 스마트시계 '젠워치'를 비롯해 인텔·소니 등도 연내에 새 스마트시계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계 특유의 패션 기능에 정보기술(IT)이 접목된 특수한 시장에서 어떤 제품이 주목받을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전자가 IFA 2014에서 수퍼 프리미엄 주방가전인 '셰프컬렉션'을 체험할 수 있는 프리미엄 라운지를 공개했다(왼쪽). LG전자가 IFA 2014에서 '울트라 올레드TV', '웹OS 탑재 스마트+ TV' 등 차세대TV와 프리미엄 무선 청소기 '코드제로 C9(싸이킹)' 등을 선보였다.

/삼성전자·LG전자 제공

獨 'IFA 2014' 무엇을 남겼나

스마트홈으로 미래 청사진 제시 · 생활가전 블루칩으로

독일 베를린 박람회장에서 열린 국제가전전시회 'IFA 2014'가 10일(현지시간)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IFA의 주제는 '소비자가전 4.0'이었다. 그 동안 스마트폰·태블릿 등의 모바일 디바이스의 성장에 비해 현상유지에 급급했던 가전업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가전이 하나로 연결된 '스마트홈 서비스'가 생활가전 분야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올랐다.

삼성전자는 '미래의 집은 완성'이라는 주제로 스마트홈을 전시장 중앙에 배치해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IFA에서 공개된 삼성 스마트홈은 ▲상황인식 기능 ▲음성인식 기기 제어 ▲에너지 모니터링 ▲안심 서비스가 새롭게 추가돼 일상생활 속에서 고객에게 스마트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삼성전자 소비자가전(CE)부문을 이끄는 윤부근 사장은 IFA의 개막 기조연설에서 "미래의 집은 스마트기기에서 취합된 빅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해 라이프스타일 패턴을 학습하고 가정 구성원에게 맞춰진 솔루션을 제공한다"며 '인간 배려'를 극대화한 새로운 집의 개념을 제시하기도 했다.

LG전자는 스마트홈 서비스 '홈챗' 지원 제품을 기존 스마트 생활가전 외에 로봇청소기, 스마트 조명, 무선 멀티룸 오디오 등으로 확대했다. 홈챗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가전제품과 소통하는 서비스다. 이와 함께 구글의 스마트 온도조절기 '네스트'와 홈챗을 연동해 네스트 단말기로도 홈챗을 제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그 동안 관망하던 보수적인 유럽 가전업체들이 이 분야에 적극성을 띤 것이 눈여겨볼 만하다. 유럽 가전 시장 1위 밀레는 스마트홈 네트워크 플랫폼인 '키베론' 기술을 도입한 '밀레 앳 홈' 시스템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가전제품과 연동 가능한 어플리케이션과 신기술을 접목한 드럼세탁기 등을 선보였다. 지멘스가 선보인 '홈커넥트' 서비스에서는 냉장고와 세탁기, 건조기, 오븐, 커피메이커 등이 인터넷으로 연결된다.

여러 종류와 그리고 여러 업체의 가전제품이 연결되어야 하는 스마트홈 서비스의 속성상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개방형 플랫폼 개발은 앞으로 남은 숙제다. 또 가전업체들끼리 어떻게 동맹군을 결성할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양성운기자 tabula0404@

메탈 소재에 드롭박스 연동 가능

클라우드 세상이다. 그런데 최근 외국 유명 연예인의 누드 사진이 애플 아이클라우드에서 유출되는 사건을 접한 이상 왠지 꺼림칙하다.

비싸나 고우나 개인용 저장장치를 쓰는 이유다. 클라우드에 불안해하고 있을 때 스토리지 기업들은 앞다퉈 매력적인 제품을 내놓았다.

얇고 가벼운 건 기본이고 TB급의 엄청난 저장공간을 확보했다.

WD(웨스턴디지털)의 외장하드 제품인 '마이 패스포트'의 한정판인 '마이 패스포트 메탈 에디션'과 '마이 패스포트 메탈 애니버서리 에디션'은 '핫 한 외장하드'의 매력을 두루 지녔다.

무엇보다 블랙·실버·골드로 구성된 메탈 컬러가 눈을 사로잡는다. 딱딱한 느낌의 무채색 일변도였던 외장하드의 얼굴이 많이 젊어졌다.

이들 제품의 용량이 1TB와 2TB로 구성됐음에도 두께는 1.3cm에 불과하다.

스마트시대에는 외장하드도 똑똑해야 하는 모양이다.

이 제품에는 하드웨어암호화와 비밀번호 설정 기능이 있어 분실 또는 도난 시에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원격 공유도 눈여겨 볼 만한데 개인 클라우드 서비스 '드롭박스'와의 연계 기능이다. 드롭박스 계정의 콘텐츠를 마이 패스포트에 보관할 수 있다.

사후 관리 부담도 덜하다. 이 제품은 WD 국내 공식 수입처 유브라자에서 3년의 보증기간을 제공한다. 외장하드 AS기간은 통상 1년이다.

떨어뜨리거나 끝이 튀는 경우가 많은 외장하드인 만큼 수리비를 줄일 수 있는 셈이다.

가격은 1TB 제품이 10만5000원, 2TB 제품이 15만9000원이다. /박상훈기자 park@

롤드컵 출전 16개팀 확정

글로벌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롤)'의 개발·유통사인 라이엇 게임즈는 '2014시즌 롤 월드 챔피언십(이하 롤드컵)'에 출전할 전 세계 16개팀과 조편성을 발표했다.

올해 롤드컵 본선 출전팀은 지난해 14개팀에서 확대된 16개팀으로 한국 3팀, 북미 3팀, 유럽3팀, 중국 3팀, 동남아시아 및 대만 2팀, 인터내셔널 와일드카드 2팀으로 이뤄져 있다.

한국의 경우 삼성 블루와 삼성 화이트, 그리고 나진 실드가 차례로 진출권을 확보했다.

/박상훈기자

가을에 즐기는 공연의 진수!

서울 도심과 원주·안동·과천 등에서 다양한 축제 이어져

풍성한 한가위가 지나고 바야흐로 축제의 계절이 찾아왔다. 그동안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던 각종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손님맞이를 끝냈다. 친구나 연인, 혹은 가족과 함께 청명한 가을에 펼쳐지는 예술의 향연에 푹 빠져보자.

◆도심서 열리는 거리 공연

서울 도심에서는 '서울 드럼 페스티벌'이 열린다. 12~13일 이틀간 서울역사박물관 광장과 신촌 연세로에서 개최되는 축제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타악 공연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유튜브 동영상 100만 조회 수를 기록한 세계적인 드러머 '토머스 랭'과 페이스북 16만 팔로우를 자랑하는 드럼계의 아이돌 '루트 홀랜드'의 배틀 공연이 있다. 난타와 두드락, 드럼 캣 등의 국내 공연팀도 축제에 참가한다.

또 20~24일 대학로에서는 대학로 거리 공연 축제 'D FESTA'가 이어진다. 러시아·스페인·프랑스·미국·일본 등 해외 우수 아티스트와 이번 축제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국내 유명 팀의 공연도 펼쳐진다.

◆폼 포즈, 화려한 댄스를 한 곳에서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 원주에서 개최되는 '원주 다이내믹 페스티벌 댄싱카니발'은 전국 최대 규모의 댄싱 축제다.

일본과 중국 등에서 600여 명의 해외 팀이 원주를 찾으며 36사단 내 포병대대와 전비대대 등 1000명의 장병들을 포함한 총 132개 팀 1만 21명의 댄서가 화려한 춤의 세계로 관람객들을 안내한다.

행사에선 조장소·김종서 밴드 등이 축하 공연을 하며 특히 군 장병들과 함께하는 '군악의 날'(18일), 영국 팝페라 가수 폴 포츠와 원주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만나는 '클래식의 날'(19일) 등이 준비됐다. 이 외에도 환경과 안전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린세이프놀이터와 창작자와 소비자가 함께 소통하는 예술 시장 프리마켓, 그리고 캠핑 페스티벌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지역색 살린 축제도 열려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안동에서는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한 축제로 ▲차전놀이 ▲놋다리밟기 ▲외전싸움 등 다양한 전통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으며 안동 주변의 문화유산 답사도 즐길 수 있다.

또 25일부터 4일간 과천에서는 '과천축제'가 개최된다. 거리에서도 예술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축제로 마당극과 거리극, 야외극을 중심으로 한 공연이 색다른 재미를 준다. 빌딩을 화폭 삼아 산악장비와 크레인 등을 이용한 공중곡예 공연도 이어지며 인형극과 마술 공연도 준비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새로운 추억을 선물한다.

/송재희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특급호텔들, 9월生 혜택 팡팡!

호텔 숙박권 등 푸짐한 경품 제공 홍보전

9월 생일을 맞는 특급호텔들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먼저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는 개관 5주년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해피버스데이 패키지'를 선보인다. 편안한 객실에서의 1박과 함께 케이크 모양의 타월, 모모 카페 테이크아웃 커피가 증정되며 이 호텔 숙박권 등 100% 당첨 행운이 있는 복권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개관 기념 주간인 15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저녁에는 다섯 커플에 한해 디너 뷔페 50%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은 개관 3주년 기념 이벤트를 준비했다. 숫자 3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호텔 내에 위치한 ▲피스트 ▲로비 라운지 & 바 ▲델리 by 쉐라톤 세 곳 중 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3만원 이용권과 이쿠아리스 스파에서 모든 트리트먼트를 3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할인권이 증정되는 '해피 3주년 패키지'가 마련된다. 게다가 9월 말까지 피스트에서는 브런치를 즐기며 옥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샌데이 브런치 & 옥션 이벤트 외 3년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디저트 아이템을 뷔페로 즐길 수 있는 '3주년 기념 디저트 뷔페'가 이어진다. 또 3주년 스페셜 와인 디너 와 로맨틱 샴페인 세트 등의 이벤트도 진행된다.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도 개관 25주년을 기념한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호텔 내 각 레스토랑과 프론트 데스크에 비치된 퀴즈 응모권을 작성해 호텔 로비의 응모함에 넣거나 각 레스토랑에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선정된 25명에게 호텔 무료 숙박권, 레스토랑 식사권 등의 선물이 전달된다. 패키지 숙박 이용 횟수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스탬프 투어 콘셉트의 'IP Passport 이벤트'에도 참여 할 수 있다. 총 150만원 상당의 혜택이 주어지는 'Sincerely Your Sweet IP 25th 패키지'도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호텔은 개관일인 9월 18일을 기념하기 위해 생크림 케이크, 아메리카노, 생맥주 등을 9180원에 판매한다.

/황재용기자

궁궐과의 만남, '궁중문화축전' 연다

20일부터 9일간 서울 4대 궁과 종묘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궁중문화 축제의 장 '2014년 궁중문화축전'이 열린다.

문화재청은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서울 4대 궁과 종묘, 한양도성 등에서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으로 개최되는 축제는 조선시대 최고의 건축기술과 예술이 집대성된 궁궐을 알리고 궁중문화를 활용한 문화유산 대표 축전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축제는 각 궁궐의 특성에 따라 궁궐별 주제로 특화됐다. 경복궁에서는 '궁중의례를 만나다'를 주제로 하는 행사가 준비되며 창덕궁에서는 '궁궐 속 자연을 만나다'라는 콘셉트의 자연속 예술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또 창경궁에서는 '궁중의 일상을 만나다'라는 주제의 덕수궁에서는 '궁궐 속 연희를 만나다'라는 주제의 프로그램을 각각 만날 수 있다.

게다가 처음으로 종묘가 야간에 개방되며 주 행사장인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는 축전을 찾은 관람객들을 위한 상설 전시관과 야간 공연이 매일 운영된다.

/송재희기자

여행으로 즐기는 '만추'

◆미국여행과 기회를 잡아라~

미국 관광청이 9~10월 두 달간 '당신이 찾아 주세요, 아무도 본적 없는 새로운 미국'이라는 주제로 총 40명에게 미국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하나은행 ▲롯데면세점 ▲롯데시네마 등과 함께 마련한 이벤트는 이들 각 업체의 지점이나 매장을 방문하면 참여할 수 있다.

◆아야나림바: 무제한 해수 테라피

인도네시아 발리에 위치한 리조트 아야나림바가 오는 30일까지 '프리플로우 버블 패키지'를 선보인다. 리조트에 위치한 아쿠아토닉 해수 테라피 풀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며 무료 Wi-Fi와 셔틀버스도 제공된다.

◆네스트 호텔 12일 개관

인천공항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한 특1급 호텔 네스트 호텔이 12일 문을 연다. 총 370개의 다양한 객실을 갖췄으며 서해를 향해 전면 창으로 설계된 레스토랑에서의 식사가 가능하다. 또 호텔은 독창적인 건축과 디자인으로 호텔 품평인 디자인 호텔스의 기준을 통과했다.

/황재용기자

'케미레시피' 마케팅 후끈

찰떡궁합 요리법 新수요 창출… 공동 마케팅도 봇물

식·음료업계가 궁합이 맞는 이종 제품을 결합한 '케미레시피' 마케팅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케미레시피란 케미스트리(chemistry)와 요리(Recipe)의 합성어로 서로 궁합이 맞는 식음료를 활용한 새로운 요리법을 뜻한다. 자사 제품을 활용한 요리법을 소개하고 유행시켜 소비를 만들어 내고 판매를 극대화하는 케미레시피 마케팅이 각광받고 있다. 또 두 업체가 협업해 궁합이 맞는 서로의 제품을 결합하는 레시피로 공동 마케팅을 펼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먼저 정식품은 베지밀 두유와 궁합이 맞는 케미푸드를 활용해 커피전문점에서 맛 볼 수 있는 두유 라떼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아이스 두유 큐브라떼'(사진)를 선보였다. 이 메뉴는 냉동고에 얼려둔 커피얼음을 잔에 넣고 '베지밀 무첨가 두유'를 부어주면 간편하게 완성된다.

오리온은 초코파이와 우유가 어우러져 완벽한 식감을 자랑하는 '초코파이 쉐이크'를 공개했다. 큼직하게 자른 초코파이와 우유 이외에 기호에 따라 꿀 또는 설탕을 믹서에 함께 넣어 갈아주면 간단하게 초코파이 쉐이크를 완성할 수 있다. 이 레시피는 자취생과 싱글족은 물론 주부들의 아이간식 고민을 덜어주는 효자 메뉴다.

조화가 잘 되는 케미푸드 제품을 결합한 레시피로 공동 마케팅을 펼치는 식음료 업체도 늘어나고 있다.

CJ제일제당과 팔도는 연어와 비빔면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일명 '연비면'을 알리는 공동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연비면'은 CJ제일제당의 '알래스카 연어'와 팔도의 '팔도비빔면'을 조합해 소비자들이 집에서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요리법이다. 비빔면 면을 삶는 동안 알래스카 연어 3분의 1캔에 팔도 비빔면 소스를 버무려 놓은 다음 익혀진 면과 잘 비벼 먹으면 된다. 두 회사는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연비면 레시피를 팔도비빔면 5개입 제품 패키지에 디자인으로 입히고 레시피 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파인애플이 설탕과 결합하면 매실청 못지않은 맛과 소화에 뛰어난 발효청이 된다. 델몬트는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 '델몬트 주부 요리왕 콘테스트'를 열어 콘테스트 참가자로 당첨자에게는 골드파인청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은 골드파인과 자일로스 설탕을 3대 2 비율로 섞어 밀폐 유리용기에 넣은 후 냉장고에 넣어 일주일 이상 숙성시키면 된다. /[illegible]기자

인천AG 성공 기원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공식 케이터링 공급 업체인 아모제푸드(회장 신희호)는 추석 당일인 지난 8일 선수촌 식당에서 선수단과 대회 임직원과 함께 합동 차례를 지냈다. 아모제푸드는 이번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공식 케이터링 공급 업체로 대회 기간 동안 1만3000여 명의 선수 임원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437여 종의 세계 각국의 음식을 선보이며 특히 스낵류 한식 뮤스턴 할랄푸드 메뉴를 이용한 푸드코트 서비스를 비롯해 각 경기장의 식음료 코너도 운영해 관람객의 편의를 돕는다. /아모제푸드 제공

'응원사이다' 출시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가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기념해 칠성사이다 한정판 '응원사이다'를 출시한다.

이 제품은 음료부문 공식후원사인 롯데칠성음료가 대회 관람객과 소비자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패키지에는 칠성사이다 모델인 배우 이민우·전세연의 응원 포즈와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선전을 응원하는 대한민국 화이팅'이라는 문구, 2014 인천아시안게임 공식로고 등이 라벨에 새겨졌다. /[illegible]기자

명절 후 여성화장품 사는 남성 30%↑

대부분의 주부들은 추석과 같은 명절이 지나면 신체적인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후유증에 시달린다.

이런 가운데 명절 후유증을 겪는 주부들을 위로하기 위해 지갑을 여는 남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K몰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개간 추석 명절 직후 2주간 30~50대 남녀 구매자 40만 명의 구매패턴을 분석한 결과, 화장품을 가장 많이 구입했다.

이 기간 동안 전체 구입 건수 중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로 1위를 기록했고, 영양제 등 건강식품이 15%, 스포츠·아웃도어 의류가 10%로 뒤를 이었다. 판매 상위 3개 카테고리에서 인기 제품으로는 수분크림, 에센스, 아이크림, 여성용 비타민, 여성 등산의류 등 모두 여성을 위한 것들이었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여성 구매량이 3% 증가한 반면 남성의 구매량은 30%나 급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량 1위인 커피 전문점 기프티콘의 경우에도 남성의 구매 건수가 10% 증가했지만 여성은 오히려 15% 줄어들면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AK몰 측은 "최근 명절 직후 소비패턴을 보면 30~50대 남성들의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며 "명절 스트레스로 고생한 아내를 위해 직접 명품화장품을 선물로 구입하고 따뜻한 격려의 문자와 함께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는 남편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illegible]기자

처치곤란 명절 음식 활용법

추석 명절 이후 잔뜩 쌓인 음식을 처치하는 것도 큰 고민이다. 차례상에 올랐던 음식에 살짝 부재료를 가미해 이색적인 요리로 탈바꿈 시킬 수 있는 마법의 레시피 3가지를 소개한다. 자료 제공: 메뉴판닷컴(www.menupan.com)

◆송편라비올리그라탕

분량: 2인분 / 난이도: 보통 / 열량: 554㎉ / 조리시간: 30분

[재료] 송편 10개, 토마토 1개, 양파 1/2개, 보코치니 치즈 70g, 파마산 치즈 약간, 버터 1큰술

[양념] 다진 마늘 1작은술, 다진 파슬리, 소금·후춧가루 각 약간

1. 토마토 윗부분에 열십자로 칼집을 살짝 내어준 뒤 끓는 소금물에 20초간 데친 후 얼음물에 담가 껍질을 벗겨낸다.
2. 토마토와 양파는 잘게 다져 둔다.
3. 달군 프라이팬에 버터를 넣고 마늘과 양파를 볶다가 토마토를 넣고 끓인 뒤 소금·후춧가루로 간을 해 토마토소스를 만든다.
4. 그라탕 용기에 송편을 깔고 ③을 얹고, 보코치니 치즈를 뿌려 220℃의 오븐에서 약 7~10분 구워준다.
5. 파마산 치즈와 다진 파슬리를 뿌려 낸다.

◆토란닭고기찜

분량: 2인분 / 난이도: 보통 / 열량: 310㎉ / 조리시간: 30분

[재료] 토란탕 2컵, 닭고기 200g, 표고버섯 6장, 우엉 1/4대, 당근 1개

[양념] 간장 3큰술, 맛술 1큰술, 설탕·생강즙·청주·식용유 각 약간

1. 표고버섯은 기둥을 떼고 씻어서 4등분하고 닭고기는 사방 3cm 크기로 썰고 우엉은 3cm 길이로 어슷 썰고 당근은 한입 크기로 썰어준다.
2. 식용유를 두른 냄비에 닭고기를 볶는다. 닭고기가 노릇해지면 까내고 우엉·당근, 표고버섯을 넣고 볶다가 생강즙과 청주를 조금 넣는다.
3. ①에 토란탕 국물을 붓고 끓이면서 거품을 걷어낸다. 닭고기 볶은 것과 설탕, 맛술을 넣고 끓인다. 국물이 바닥에 약간 남을 때까지 졸여 그릇에 담는다.
4. 토란탕에서 건진 토란을 ③에 넣고 간장을 반 넣은 뒤 5분쯤 끓이다가 나머지 간장을 붓고 간장을 반 넣은 뒤 5분쯤 끓이다가 나머지 간장을 붓고 4~5분 다시 끓인다. 국물이 바닥에 약간 자작하게 남을 때까지 조려 그릇에 담는다.

◆두부소박이

분량: 2인분 / 난이도: 보통 / 열량: 232㎉ / 조리시간: 30분

[재료] 두부 1모, 표고버섯 말린 것 4개, 느타리버섯 70g, 청피망·당근 각 1/2개, 밀가루 1컵, 물 2/3컵, 식용유 약간

[양념] 소금·후춧가루 각 약간, 깨소금·물엿 각 1큰술

1. 두부는 너비 4cm, 두께 0.8cm 정도로 썰어서 소금을 살짝 뿌려 물기를 제거한다.
2. 말린 표고버섯은 미온수에 불려서 기둥을 떼어낸 후 곱게 다지고, 느타리버섯도 곱게 다져서 프라이팬에 함께 넣고 볶다가 소금, 후춧가루, 깨소금, 물엿을 넣고 골고루 양념해 식혀둔다.
3. 피망과 당근은 다져서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볶다가 소금·후춧가루로 간을 해 ②에 섞는다.
4. 밀가루를 차가운 냉수나 얼음물로 되직하게 반죽해 소금 간을 한 뒤 튀김옷을 만들어 식용유를 두른 팬에 앞뒤로 구워준다.

아웃도어 '별들의 전쟁'

신민아·성준 등 '뉴페이스' vs 현빈·조인성 등 '장수모델' 경쟁

그 어느 해보나 어려운 상반기를 보낸 아웃도어 업체들이 하반기 '별들의 전쟁'을 치를 준비를 마쳤다.

본격적인 성수기인 가을·겨울 시즌을 맞아 톱스타들을 앞세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 올해는 이민호·현빈·조인성 등 장수모델과 신민아·성준·이정재 등 뉴페이스의 경쟁 구도가 볼 만하다.

상반기에 이어 올 가을 아웃도어브랜드의 얼굴로 활약할 모델은 '아이더'의 이민호, 'K2'의 현빈, '블랙야크'의 조인성 등이 있다.

배우 이민호는 2011년부터 아이더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아웃도어 브랜드 장수모델이다. K2 모델인 배우 현빈(사진 왼쪽) 역시 2011년에 K2를 통해 아웃도어 시장에 첫 발을 내디뎠으며, 군 제대 이후 재계약해 현재까지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블랙야크의 경우 2011년 5월부터 모델로 활동 중인 조인성을 앞세워 젊은 감성을 표현하기 위해 공고모델로 산에 아이돌 그룹 갓세븐을 동시 기용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하반기에 뉴페이스를 모델로 발탁해 변화를 꾀하는 브랜드도 상당수다.

LF가 전개하는 라푸마는 배우 신민아(오른쪽)를 새 얼굴로 발탁했다. 라푸마는 가을·겨울 시즌 신민아를 통해 감각적인 디자인과 다이나믹한 기능성을 강조한 아웃도어 트렌드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이 신민아의 첫 아웃도어 모델 데뷔라 업계의 관심을 더욱 불러 일으켰다.

코오롱스포츠는 탕웨이와 함께 호흡을 맞출 새로운 남자 모델로 성준을 선정했다.

코오롱스포츠 마케팅팀 박승화 팀장은 "올해는 탕웨이와 성준을 앞세워 하반기 중국 시장에서 유통망 확대와 공격적인 현지 마케팅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마모트' 소시섭, '헬리아웃도어' 송일국, '몽벨' 이정재 등이 하반기 각 브랜드를 대표하는 얼굴로 빛에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지원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뷰티업계 "고마워요! 펑리위안"

쇼핑 목록 공개되자 불티

뷰티업계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부인인 펑리위안(사진)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10일 에이블씨엔씨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한 잡지에서 펑리위안 여사가 지난 7월 방한 시 미샤의 '비비크림'과 어퓨의 '셀튜닝 스네일젤 마스크'를 구입했다고 보도한 이후 해당 제품의 매출이 껑충 뛰었다.

마스크는 7~8월 매출이 직전 두 달보다 104%, 비비크림은 같은 기간 10% 증가했다.

에이블씨엔씨 관계자는 "중국 현지에서 해당 제품을 찾는 고객이 늘어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면서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 역시 이들 제품을 많이 사간다"고 설명했다.

토니모리에서는 '돌풍 모어 브러쉬 진동 클렌저'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토니모리 관계자는 "중국의 유력 잡지가 소개한 펑리위안 여사의 쇼핑목록에 이 제품이 소개되면서 요우커(중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다.

펑리위안 여사가 구매한 '돌풍 모어 브러쉬 진동 클렌저'는 진동기기와 브러쉬를 사용해 마사지하듯 세안할 수 있는 제품이다. 분당 1만회의 피부 진동 마사지 효과로 깔끔한 클렌징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명절증후군 문화공연으로 훌훌~"

강강술래, 뮤지컬 '조로' 공연티켓 증정
여행·캠핑용 가정간편식 최대 40%할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추석 이후 명절증후군을 겪는 고객들을 위해 양요섭·키 등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뮤지컬 '조로' 티켓을 증정하는 문화 힐링 이벤트를 벌인다.

2014년 '조로'는 리부트(시리즈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것) 작품으로 화려한 무대와 흥겨운 선율, 스릴 넘치는 검술과 스턴트 액션 등 다양한 볼거리를 자랑한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sullai.com) 이벤트에 신청글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한다.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7[illegible])을 통해선 명절증후군 극복을 위한 여행·캠핑 나들이를 떠나는 고객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기 가공식품을 40% 할인 판매한다.

100% 국내산 돼지 등심 부위를 통째로 사용한 통등심돈가스(3박스=2.16kg)는 2만7000원, 100% 자연치즈를 사용한 모짜렐라돈가스(3박스=2.16kg) 3만2400원에 판매한다.

또 100% 한우로 우려내 맛이 진하며 면역력 증진과 기력 보충에 좋은 한우사골곰탕 대용량박스(800㎖ 6팩, 18인분)는 3만4400원, 소용량박스(350㎖ 10팩, 20인분)는 3만78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이밖에 100% 한우갈빗살로 만든 찰진한우떡갈비(1.08kg) 4만2000원와 국내산 돼지고기를 70%나 넣은 특임자완돈너비아니(1.08kg) 2만5200원),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세트(50g×6봉, 2만5800원) 등도 파격가로 구매 가능하다.

이대목동병원, 건강 강좌

이대목동병원이 위·대장센터의 위·대장암검진센터 4주년 개소를 기념하기 위한 건강강좌를 오는 17일 개최한다.

강좌는 '위·대장 건강관리'를 주제로 열리며 이순남 이화여대 의료원장의 축사와 함께 ▲궁금해요 캡슐내시경(심기남 소화기내과 교수) ▲대장암 누가 걸리기 쉬운가요(문정보 소화기내과 교수) ▲대장암 예방의 지름길, 폴립 치료하기(김성은 소화기내과 교수) 등의 강연이 준비된다.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병원은 추첨을 통해 위·대장 내시경 검진권 등을 경품으로 증정할 계획이다. /황재용기자 hsoul38@

올가을 추억의 아이템이 돌아온다

레트로 패션 유행 ·빅 패턴·와이드 팬츠 인기

최근 배우 공효진의 와이드 팬츠·꽃무늬 원피스 등이 화제를 모으며 레트로 패션 열풍이 불고 있다. 패션 관계자들은 매년 가을이면 주목을 받았던 복고 스타일이 올 가을 업그레이드 돼 돌아왔다고 귀띔했다.

과감한 패턴은 복고 감성을 끌어내 가장 손쉽게 레트로 스타일을 완성해준다. 특히 큼직한 꽃무늬나 기하학적 무늬는 독특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빅 패턴을 활용할 때는 재킷과 스커트, 니트와 스커트 등 같은 패턴의 두 가지 아이템을 매치하면 한층 스타일리시해 보인다. 다만 색상은 원색보다 그레이·버건디·네이비 등 톤 다운된 컬러 배색이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내준다.

더불어 올 가을은 1970년대의 자유로운 감성을 반영한 루즈핏 실루엣이 유행할 전망이다.

보이프렌드 핏의 트렌치코트는 중성적인 느낌이 강하지만 미니 드레스와 매치하면 여성스러움을 극대화할 수 있다.

매니시한 분위기의 와이드 팬츠는 어떤 벨트·주얼리를 함께 하느냐에 따라 캐주얼룩은 물론 오피스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와이드 팬츠를 입을 때 발등을 덮는 길이를 선택하고 스틸레토 힐을 신으면 평소보다 키가 크고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다.

르윗의 담당자는 "과감한 패턴의 옷은 심플한 디자인을 고르고, 미니멀한 루즈핏 패션에는 포인트가 되는 소품을 더하면 더욱 멋스러운 복고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만능 연예인? 올인보다 분산 투자

음악 드라마 예능 모두 섭렵한 레인보우 재경

어느덧 데뷔 5년차다. 가수로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딛은 걸그룹 레인보우의 리더 김재경(26)은 OCN '신의 퀴즈4'에서 연기를, 온스타일 '겟 잇 뷰티' 에선 진행을 맡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만능 엔터테이너로 거듭났다.

◆ 배우 초급반 열혈 수강생

그는 '신의 퀴즈4'에서 임태경 역을 맡아 쟁쟁한 배우들 사이에서 톡톡 튀는 매력을 선보였다.

"연기는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금은 설레는 마음이 더 커요. 모든 것 하나하나가 흥미롭고 배울 것들이라 즐거워요. 연기돌에 대한 대중들의 시선이 좋지만은 않단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비롯한 아이돌이 연기를 한다고 해서 게을리 하는 경우는 없어요. 류덕환 오빠, 박준면 언니, 감독님 등 많은 분들 사이에서 많이 배우고 왔어요."

그는 곧이어 2014 드라마 페스티벌 특집 단막극 '터닝 포인트'에 출연해 이종혁과 함께 호흡을 맞췄다. 아이돌 출신 연기자에겐 여주인공 자리가 큰 부담이 됐을 터.

"주연배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기를 잘 하는 것은 물론 현장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것도 주연의 역할이라 생각해요.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촬영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잔 상태에서 최상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게 큰 숙제인데 그런 면에서 이종혁 오빠는 참 대단해요. 스태프들이 지쳤을 때 현장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들고 제 연기도 코치해주시고, 배울 점이 참 많은 분이죠."

◆ 여러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아이돌이 연기를 하거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일은 이제 흔하다. 그런 그들에게 주로 붙는 수식어는 팔방미인이다. 하지만 재경만큼 다양한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돌은 많지 않다. 하나에만 집중하기도 어려울 텐데 곧잘 해내는 그의 비결은 무엇일까.

그는 노래·연기·예능 등을 모두 섭렵하는 것을 "여러 바구니에 달걀을 나눠 담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분산 투자하는데 능하다. 그는 연습생 시절 가수 준비와 학업을 병행해 스스로의 힘으로 대학 진학에 성공했다.

"10대에 데뷔하는 친구들 중에 연습생활을 한다고 학교생활에 소홀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그 시절이 소중한 걸 알고 그리워 할 것 같기 때문이죠. 하나에 모든 걸 쏟아 붓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시기에 맞는 것들을 배우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에 올인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그만의 비결이다.

> 다양한 일, 여러 바구니에 달걀 나눠 담는 것
>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레인보우에 도움됐으면…

"여러 분야의 일을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레인보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젊은 남성분들이 주요 팬층인데 '겟 잇 뷰티'를 하면서 여성분들의 마음을 사고 싶고 드라마를 통해 어른들 사이에서 인지도를 얻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 레인보우는 자매 같은 존재

레인보우는 손재주가 뛰어난 아이돌로 유명하다. 특히 지숙과 재경은 수준급의 요리 솜씨와 손바느질 솜씨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은다.

"첫 번째 앨범 이후에 1년 8개월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멤버들은 물론 팬들도 힘들어 했죠. 그 때 제가 멤버들에게 취미를 가지라고 권유했어요. 뜨개질을 하든, 곡을 쓰든 무엇이 됐든 간에 취미를 만들면 스트레스도 풀고 각자만의 캐릭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얘기해 줬죠."

가수인데 본업보다 옷 만들기나 요리로 주목받는 것이 조금 아쉽진 않을까.

"전혀요. 현재 제 직업이 연예인이고 취미로 다양한 것들을 해보는 거죠. 안 지 얼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이쪽 일이에요. 하루아침에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도 있으니 미래의 대비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웃음)"

다른 분야의 일을 하면서도 레인보우를 생각하는 모습은 리더답다.

"레인보우 앨범이 자주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팬 분들이 서운해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멤버들이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레인보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멤버들끼리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10년이든 20년이든 후에 레인보우로 꼭 다시 만나서 무대에서 만나기로 말이죠. 멤버들은 제게 자매 같아요. 아이돌 생활이 끝나도 계속 함께할 테니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지민기자 sanajkum@metroseoul.co.kr
사진, 김성균(가호드적어음) 디자인/박은지

싸이·빅뱅 아시안게임의 가수

개·폐막식 피날레 장식

가수 싸이(왼쪽 사진)와 그룹 빅뱅이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의 시작과 끝을 장식한다.

싸이는 19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의 개막식 피날레 무대에 오른다. 빅뱅은 다음달 4일 같은 곳에서 열리는 폐막식의 마지막 공연을 책임진다.

6일 기준 유튜브에서 20억7650만뷰를 돌파한 '강남스타일', 7억2990만 뷰와 1억2760만뷰를 넘어선 '젠틀맨'과 '행오버'를 통해 월드스타의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싸이는 개막식 피날레 무대에서 특유의 에너지 넘치고 파워풀한 무대로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빅뱅은 폐막식 마지막 무대에 올라 국내는 물론 해외 팬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빅뱅은 지난달 15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AIA 리얼 라이프: 나우 페스티벌 2014 위 YG패밀리 서울 콘서트'에서 뛰어난 가창력과 화려한 무대매너를 선보였다. 인천 아시안게임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빅뱅은 각국의 선수와 팬에게 특별한 퍼포먼스를 선사할 계획이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2PM '오두바이춤' 몰고 돌아왔다

독특한 안무 4집 활동 개시

컴백을 앞둔 2PM(사진)이 개성 넘치는 음악과 안무, 멤버들의 매력으로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2PM은 10일 정규 4집의 타이틀곡 '미친 거 아니야?'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매 앨범마다 독특한 춤으로 인기를 얻었던 이들은 이번 신곡에서는 '오토바이 춤'을 내세워 봐제 몰이를 한다.

뮤직비디오에는 오토바이 춤을 추며 촬영장 세트를 부수고 이곳저곳에서 파티를 즐기는 멤버들의 모습을 담았다. '미친 거 아니야?'는 멤버 준케이가 작사·작곡 및 프로듀싱한 곡으로 바운스 디스코와 하우스 장르를 기반으로 했다. 몸을 들썩이게 하는 신나는 리듬을 바탕으로 멤버들의 자유분방한 매력을 담았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 곡을 비롯해 '오늘 같은 밤' '쉬즈 매 검' '마인' '어썸' '비가와' '보이프렌드' '꿀&쫄' '이별여행' '뷰티풀' '아임 유어 맨' 등 총 11곡이 수록된다.

준케이는 타이틀 곡 외에 '이별여행'의 작사·작곡을 했다. JYP엔터테인먼트의 대표 프로듀서인 박진영이 타이틀 곡을 주로 작사·작곡해 왔던 이전 앨범과 달리 2PM 멤버가 프로듀싱까지 맡아 음악적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 다른 멤버 찬성은 '보이프렌드'의 작사·작곡, '마인'의 작사를 맡았다.

이 외에 박진영 및 심은지, 이정표, 노는 어린이, 영원의 얼굴들, 레이비시운드 등의 프로듀서들이 앨범에 참여했다. 2PM은 11일 엠넷 '엠카운트다운'에서 새앨범 수록곡을 최초로 공개한다. 음원과 음반은 15일 출시된다. /유순호기자

'원조 한류스타' 보아 화려한 귀환

일본 정규 8집 발매…4년 만에 전국투어

보아(사진 가운데)가 4년여 만에 일본 전국투어를 기획해 변함없는 디바의 명성을 확인했다.

보아는 6~7일 일본 도쿄 NHK홀에서 '보아 라이브 투어 2014~후즈 백?~'을 개최했다. 폭발적인 라이브와 카리스마 넘치는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무대로 공연장을 가득 채운 관객들을 열광시켰다.

이번 라이브 투어는 지난 3월 발매된 일본 정규 8집 '후즈 백?' 출시를 기념한 것으로, 도쿄를 시작으로 나고야·오사카·후쿠오카 등 4개 지역에서 개최됐다. 2010년 2월 시작한 '2010 보아 라이브 투어 2010~아이덴티티~' 이후 처음 열리는 단독 콘서트 투어라 현지 팬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다.

이번 공연에서 보아는 생생한 라이브 밴드 연주에 맞춰 데뷔곡 'ID; 피스 B'를 비롯해 어쿠스틱 버전의 '메리 곤 라디', '발렌티' '리슨 투 마이 하트' '이트 유 업' 등 히트곡을 무대에 올렸다. 올 국내 발표 예정으로 콘서트에서 최초 공개한 보아의 자작곡 '길라이' 무대 등 한국·일본·미국의 히트곡을 총 망라한 20곡을 선사했다.

2시간 30분 동안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 감미로운 발라드, 섹시하고 큐트한 매력까지 더한 공연으로 현지 팬들을 매료시켰다. 관객들은 '오랜만에 콘서트장에서 만나는 보아를 위해 모든 노래를 따라 부르고 상징색인 노란색 야광봉을 일제히 흔들며 환영했다.

보아는 14일 나고야에서 공연을 한다. /유순호기자

갓세븐 데뷔 전 日 벨소리차트 1위

그룹 갓세븐(사진)이 일본 데뷔 곡 '어라운드 더 월드'로 일본 벨소리 사이트 레코초크에서 정상에 올랐다.

다음달 일본에서 데뷔하는 갓세븐은 8일 새 앨범 타이틀곡 '어라운드 더 월드'를 선공개해 레코초크 1위를 차지했다. 아직 본격적인 현지 프로모션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둔 성과라 향후 활동에 기대를 모은다.

다음달 22일 발매될 '어라운드 더 월드'는 세상을 향해 꿈을 펼쳐가는 갓세븐의 넘치는 에너지를 담은 앨범으로, 동명의 타이틀곡과 2PM의 준케이가 작사·작곡·프로듀싱한 '소 럭키' 가 수록될 예정이다.

갓세븐은 일본 데뷔 앨범 발표에 앞서 다음달 7일 일본 전국투어 '갓세븐 1st 재팬 투어 2014'에 돌입한다. /유순호기자

마마스건 새음반 먼저 만난다

3집 '칩 호텔' 발표 앞두고 26일 내한공연

영국 출신 밴드 마마스건(사진)이 1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는다. 마마스건은 오는 26일 유니클로 악스홀에서 단독 내한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마마스건은 지난 2009년 소울, 펑크를 기반으로 재즈, 팝, 록 등 다채로운 장르가 녹아든 첫 음반 '루츠 투 리치스'를 발표하며 화려한 데뷔를 알렸다. 빌보드 차트 핫100에서 3위에 오르면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2011년 발표한 2집 음반 '더 라이프 & 소울'은 애시드 재즈와 레트로 소울 장르가 녹아든 음악을 담아 대중과 평단의 호평을 동시에 받았다. 오는 9일에는 세 번째 음반 '칩 호텔'의 발매를 앞두고 있다. 앨범 발매를 앞두고 선보인 싱글 '레드 카세트'는 영국 BBC 라디오 주간 방송횟수 1위를 차지하며 변함없는 인기를 증명했다.

한국과의 인연도 깊다. 2011년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로 처음 내한한 마마스건은 2013년 펜타포트에서는 서브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올랐다. 가수 존박의 앨범을 작곡했으며 박효신과 스튜디오 인증샷을 공개하는 등 국내 뮤지션들과도 친분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마마스건의 단독공연은 9월에 발매되는 새 음반 수록곡과 히트곡들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다. 록페스티벌 못지않은 화려하고 충만한 에너지를 보여줄 예정이다. 티켓 예매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인터파크에서 진행된다.

/장병호기자 [illegible]

"10년 커리어 슈퍼주니어 건재"

美 빌보드 7집 집중조명 실험적 음악 호평

그룹 슈퍼주니어(사진)의 정규 7집 '마마시타'가 빌보드에서 집중 조명을 받았다.

미국 유명 음악 매체 빌보드는 최근 K팝 칼럼 코너 'K 타운'에 빌보드 월드 앨범차트(9월 13일자) 1위를 차지한 슈퍼주니어에 대해 '슈퍼주니어 '마마시타' 발매 3일 만에 월드 앨범차트 정상에 오르다(Super Junior's Mamacita Tops World Albums Chart With Only Three Days of Sales)'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빌보드는 "베테랑 보이밴드가 새 앨범 타이틀 곡을 통해 라틴댄스와 뉴 잭 스윙으로 대담한 시도를 했다"며 "거의 10년의 커리어에 접어드는 슈퍼주니어는 아직 건재하며 2년만에 돌아온 슈퍼주니어는 가장 실험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타이틀 곡 '마마시타(아야야)'에 대해 "테디 라일리가 프로듀싱한 이 트랙은 뉴 잭 스윙과 보이밴드 특유의 하모니가 조화를 이루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 후렴구에서 최고로 매력적인 조화를 이룬다"고 호평했다. 뮤직비디오에 대해서는 "스파게티 웨스턴 무비 테마로 멤버들이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하고, 유명 영화 장르에 편집하듯 안무 사이사이에 스토리를 삽입해 눈길을 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앨범은 타이틀 곡뿐 아니라 다른 트랙들 역시 K팝의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보여준다"고 수록곡을 소개하며, "슈퍼주니어는 정규 7집을 통해 장르의 도약을 보여주며 더욱 실험적이고 탄탄한 앨범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칭찬했다.

1일 발매된 '마마시타'는 한터차트, 신나라레코드 등 국내 각종 음반판매량 집계 사이트에서 주간차트(9월 1일~9월 7일) 1위를 차지했다. 타이틀 곡 '마마시타(아야야)'는 대만 최대 온라인 음악 사이트 KKBOX의 한국 음악 톱100차트에서 주간차트(8월 31일~9월 6일) 정상에 올랐다.

'마마시타(아야야)' 뮤직비디오 역시 중국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 아이치이와 중국 음악 사이트 인위에타이 V차트 뮤직비디오 주간차트(9월 1일~9월 7일)에서 2주 연속 한국어 부문 1위를 기록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하정우·송강호도 제친 축구대표팀

우루과이 평가전 중계 추석 시청률 1위

한국 축구 대표팀 평가전이 다양한 추석특집 프로그램을 제치고 연휴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10일 시청률 조사회사 TNmS에 따르면 6~9일 방송된 추석특집 프로그램 시청률을 조사한 결과 8일 KBS2에서 방송된 한국과 우루과이의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이 시청률 16.1%로 1위를 기록했다.

9일 KBS2에서 방영된 하정우 주연의 영화 '더 테러 라이브'가 10.5%, 9일 방송된 MBC '진짜 사나이 유격특집 스페셜'이 10.1%로 그 뒤를 이었다. 또 6일 SBS에서 방송된 영화 '관상'이 9.4%, 9일 방송된 MBC 추석특집 '2014 나는가수다'가 9.3%, 7일 류현진이 선발 등판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여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메이저리그 경기 중계가 9.3%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채널별로는 전국 기준으로 MBC가 5개로 가장 많았고, KBS2가 3개, KBS1과 SBS는 1개 프로그램씩 10위 안에 들었다.

/유순호기자

태양 4년 만에 단독공연

그룹 빅뱅의 태양(사진)이 4년 만에 국내 솔로 콘서트를 연다.

태양은 10월 11~12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단독 공연 '라이즈'를 연다. 태양이 국내에서 솔로 공연하는 건 이번이 세 번째이며 2010년 이후 4년 만에 단독 무대에 서는 것이다.

이날 공연에선 6월 발표한 정규 2집 '라이즈'의 수록곡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티켓 예매는 16~17일 G마켓에서 진행된다.

/전효진기자 jeonh@[illegible]

머라이어 캐리 10월 한국 온다

11년 만에 내한 올림픽공원서 콘서트

세계적인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사진)가 11년 만에 국내 팬들을 만난다.

다음달 8일 올림픽공원 내 잔디마당에서 열리는 머라이어 캐리 내한공연은 그의 14번째 정규앨범 '미 아이 엠 마라이아…더 일루시브 샹투스 쇼'의 아시아 투어 중 하나다.

머라이어 캐리는 이번 공연에서 '히어로', '아윌 비 데어', '터치 마이 바디' 등의 히트곡은 물론 최신 앨범에서 한 번도 공연하지 않았던 곡들과 깜짝 놀랄 만한 노래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머라이어 캐리는 "이 앨범을 작업하는 동안 쏟아부었던 즉흥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들을 공연에서 팬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끊임없이 새로운 곡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있는 도시에서 내가 공연 전날 밤에 만든 새로운 노래를 듣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전하며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1990년 싱글 '비전 오브 러브'로 데뷔한 머라이어 캐리가 발표한 정규 앨범은 총 14장으로 현재까지 2억2000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또 5옥타브를 넘나드는 가창력과 작곡 능력까지 모두 갖춘 그는 5개의 그래미상, 17개의 월드뮤직 어워드, 11개의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를 수상한 세계 최정상 여자 솔로 가수다.

한편 머라이어 캐리의 이번 내한 공연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가능하다.

/김지민기자 [illegible]

'타짜-신의 손' '루시' '두근두근 내 인생'(왼쪽부터)

추석 흥행 승자는 '타짜2'

'타짜-신의 손' '두근두근 내 인생' '루시'의 3파전으로 펼쳐진 추석 극장가 흥행 대결의 성적표가 공개됐다. '타짜-신의 손'이 전작에 이어 8년 만에 다시 추석 극장가를 점수했다.

'타짜-신의 손'은 개봉 첫 날 20만1164명(영진위 통합전산망 기준)의 관객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1위로 첫 등장했다. 2014년 개봉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중 최고의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했다.

주말과 추석 연휴가 포함된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동원한 관객 수는 153만2284명이다. 세 편의 영화들 중 압도적인 관객 동원으로

'루시' 선전… '두근두근 내 인생' 기대 못미쳐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누적 관객수도 개봉 7일 만에 200만을 돌파했다. 역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영화 중 최단기간 기록이며 '타짜'보다 하루 빠른 속도다.

'타짜-신의 손'은 지난 2006년 추석 시즌에 개봉해 전국 684만 관객을 동원한 '타짜'의 속편으로 제작 단계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다. 속편에 대한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받았던 '타짜-신의 손'은 최승현·신세경·곽도원·유해진 이하늬 이경영 김윤석 등 호화 캐스팅 그리고 '써니'의 강형철 감독이 보여주는 감각적인 연출로 추석 극장가를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올해 추석 극장가는 '타짜-신의 손'과 '두근두근 내 인생'이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두근두근 내 인생'은 개봉 이후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치는 관객 동원으로 세 편의 영화들 중 가장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두근두근 내 인생'은 개봉 첫 날 10만1063명의 관객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3위로 첫 등장했다. 지난 6일부터 9일까지는 69만 7451만1692명의 관객을 모았다. 9일 박스오피스에서는 '해적: 바다로 간 산적'에 밀려 4위로 한 계단 하락해 체면을 구겼다. 개봉 7일 만에 누적 관객수 100만을 돌파한 것에 만족해야 했다.

올 추석 연휴 대작들 중 유일한 할리우드 영화였던 '루시'는 세 편의 영화들 사이에서 묵묵히 선전하며 2위 자리를 지켰다. 개봉 첫 날 14만3359명을 모아 박스오피스 2위로 첫 등장한 '루시'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90만9153명의 관객을 모으며 2위 자리를 고수했다. 누적 관객수는 134만7028명을 기록 중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추석 극장가 숨은 흥행 주역은?

'해적' '비긴 어게인' 대작들 틈새서 선전

올해 추석 극장가의 또 다른 수인공은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이하 '해적', 왼쪽 사진)과 '비긴 어게인'(오른쪽)이었다. 이들 영화들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대작들 사이에서 선전을 이어가며 예상을 넘는 흥행 성적을 올렸다.

'명량'의 뒤를 이어 극장가 흥행을 이끌어온 '해적'은 지난 3일 '타짜-신의 손' '두근두근 내 인생' '루시'의 개봉으로 박스오피스 5위를 차지하며 하향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 6일 토요일 하루 동안 10만7763명(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기준)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4위로 올라섰고, 추석 연휴 동안에는 오히려 관객 수가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다시 이어갔다.

'해적'의 선전은 추석 극장가의 유일한 가족 코미디로 관객들을 사로잡은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연휴 기간 동안 모은 관객 수는 66만6485명이다. 9일 박스오피스에서는 '두근두근 내 인생'을 제치고 3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또한 10일 오전 9시 기준으로 누적 관객수 800만을 넘어서며 추석 극장가의 숨은 승자임을 증명했다.

다양성 영화로 개봉한 '비긴 어게인'도 박스오피스에서 이변을 보였다. 2014년 다양성 영화 최고 흥행작인 '비긴 어게인'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34만711명을 동원하며 선전을 이어갔다. 누적 관객수는 139만을 모아 14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달 13일 185개의 스크린에서 첫 선을 보인 '비긴 어게인'은 관객들의 입소문에 힘입어 9일까지 371개로 스크린을 확대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과 '러브 액츄얼리'에 이어 역대 외화 다양성 영화 흥행 순위 3위를 기록 중이다.

/장병호기자

'대세' 전지현·이정재·하정우 한자리

최동훈 감독 '암살' 촬영 시작

최동훈 감독의 신작 '암살'이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오달수 조진웅 이경영 최덕문의 캐스팅을 확정하고 9월 중국 상하이에서 크랭크인한다.

'암살'은 1930년대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작전을 위해 모인 암살자들과 임시정부요원, 그리고 청부살인업자까지 조국도 이름도 용서도 없는 이들의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이번 작품에는 '도둑들'로 최동훈 감독과 작업한 전지현, 이정재가 다시 출연한다. 전지현은 암살단을 이끄는 대장이자 독립군 저격수 안옥윤 역을 맡았다. 강도 높은 액션과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인다. 이정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원 염석진을 연기한다.

하정우는 '암살'로 최동훈 감독과 첫 작업에 나선다. 300달러면 국적과 성별을 불문하고 누구든 처리해주는 청부살인업자 하와이 피스톨 역을 맡았다. '도둑들'에 출연했던 오달수는 하와이 피스톨의 오른팔 포마드 역으로 하정우와 연기호흡을 맞춘다.

여기에 조진웅은 출기 왼둔가 속사포 역을 맡았으며 최덕문은 폭탄 제조 기술자 황덕삼 역으로 전지현과 함께 호흡을 맞춘다. '암살'은 내년 여름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설경구, 김일성으로 변신?

'나의 독재자'로 스크린 컴백

배우 설경구가 영화 '나의 독재자'(감독 이해준)를 통해 김일성으로 변신한다.

'나의 독재자'는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리허설을 위해 김일성의 대역이 존재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영화적 상상력을 가미한 작품이다. 대한민국 판북판에서 자신을 김일성이라 굳게 믿는 남자와 그런 아버지 덕에 인생이 꼬여버린 아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이번 영화에서 설경구는 무명의 연극배우에서 일생일대의 배역인 김일성 역을 맡게 되는 인물인 성근을 연기했다. 공개된 스틸은 김일성 분장을 한 설경구의 열모습을 담아 영화 속 변신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만든다.

'나의 독재자'는 '천하장사 마돈나' 와 '김씨 표류기' 등의 각본과 연출을 맡았던 이해준 감독의 신작이다. 박해일이 성근의 아들 태식 역을 맡아 설경구와 생애 첫 연기 호흡을 맞췄다. 올해 가을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환절기에는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과일이나 채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또 비타민제나 영양제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감기가능지수 /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칸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4	2	9	
4		2	3				1	
		1		2			4	
7					1			
			4		8			
			9					7
	8			4		9		
	4				2	6		8
	5	9	6			3		

	9		3					1
2		6		4				
		5				7	6	4
		4			8		3	
			4	5	3			
	2		9			4		
3	5	2				6		
				7		6		3
9					4		5	

스도쿠 정답

문제제공 : 보누스
「퍼즐 스도쿠 프리미어」(타티 고든 프랭크 롱고 지음)

임금님의 식욕촉진제, 고추장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세계적으로 독특하고 역사적으로 특별한 식품이 고추장이다. 된장도 우리 고유의 식품이지만 따지고 보면 된장은 여러 나라에서 먹는다. 일본에는 미소라는 된장이 있고, 중국에는 더우장(豆醬)이 있다.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지만 인도네시아에는 템페, 태국에도 티오제우라는 된장이 있으니 된장은 아시아 공통의 식품이다. 반면 고추장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고추장은 쓰임새도 특별했다. 모든 음식에 넣는 조미료라기보다 특히 입맛이 떨어졌을 때 식욕을 돋우는 식욕촉진제 역할을 했으니 고추장을 먹으며 입맛을 되찾았던 이가 바로 조선 후기의 영조 임금이다.

영조는 위이 좋았던 모양이다. 때문에 승정원일기에는 임금이 식욕을 잃었을 때 자주 수랏상에 고추장을 올렸다고 나온다. 영조 역시 송이버섯, 전복, 꿩고기와 고추장, 이렇게 네 가지만 있으면 밥을 잘 먹을 수 있다며 좋아했다.

고추장으로 식욕을 돋웠던 사람이 비단 영조 임금만은 아니었다. 순조 때의 실학자 이규경은 고추장에 대해 "비위를 디스리는 음식"이라고 표현했으니 조선 후기에 고추장은 여러 사람의 식욕촉진제 역할을 했다.

영조는 고추장 중에서도 특히 사헌부 관리로 있던 조종부의 집에서 담근 고추장을 특별히 좋아했다고 한다. 승정원일기에 "내의원에서 만든 고추장이 사대부 집의 것만 못하다"면서 조종부의 집에서 가져온 고추장을 즐겨들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조종부 집안의 고추장이 왜 그리고 얼마나 특별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으니 지금 그 맛을 짐작할 수는 없다. 다만 흥미로운 사실은 조종부의 본관이 전북 순창이다. 지금도 순창 고추장이 유명하지만 18세기 초반 문헌에 이미 순창 고추장이 기록돼 있으니 조종부 집안의 고추장이 바로 순창 고추장이었을 수도 있겠다.

추석연휴가 끝났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은 후유증이 남아있을 수 있다. 이럴 때는 고추장으로 조미한 음식으로 느끼한 입맛을 디스리며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방법이다. /음식문화평론가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533-8877
www.saju4000.com

중소기업 다니는 노처녀, 희망 있나
피아노 취미로 정서 바꾸어 보세요

독자 박○○, 38세(1977년 음력 11월 30일 사시 巳時생)女

Q 메트로 신문의 삶의 고단함속에 지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저 역시도 별다른 존재가 아니라고 실감 하면서 용기를 내어 저의 고민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38세 된 노처녀 입니다. 지금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총무겸 회계 경리 업무를 보고 있는데 월급이 쥐꼬리이지 회사의 생산제조에 몸 빼고 의식주에 관계된 여러 잔다하고 궂 아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이 지경까지 왔는데 이제는 삶을 여유 있게 살고 싶습니다. 제 팔자에 그렇게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성미가 소심한편이고 신경이 예민하여 괴로웠습니다.

A 사주에 겁재(劫財)가 강한 경우 돈을 잘 벌지 못하거나 재물이 들어와도 어떻게든 헤쳐나갈 일이 생깁니다. 건재란 말 그대로 재물을 빼앗는다는 뜻의 신살 입니다. 항상 말이 많다거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을 때 심중갈구입니다. 인생사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인데 같은 사항을 놓고 생각하는 것에 서로 틀리다는 것입니다. 할 컵에 물 반잔을 보고 아직도 반이나 남에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반 밖에 안 남았다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는 바람에 절망 바이러스가 유행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라고 합니다. 귀하는 '편도가'의 형상으로 성격이 담백하고 겸유가 넘어 주변에 많은 일들을 처리하기는 합니다만 결혼 전에는 사주에 재물이 넉넉하게 따르지는 않는 명조(사주구조)입니다. 조심성이 지나치게 많이 스스로 불안해지기 쉬운 성격인데 자신의 장점을 잘 알아서 생활을 하면 지찌기가 벽진속속이 되어 머리움을 느끼지 않게 되어 날뛰이 활력으로 이겨 갈 수가 있습니다.

사주상명으로 거관유살(去官留殺)을 하고 살이 양립되어 넘을 경우 정관(正官)은 合去(합거) 되어서 제거해놓고 칠살(七殺)만 남아 있음으로 탁한 사주가 귀격으로 변할 상입니다. 이럴에는 아주 좋은 사주로 운세가 변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얼찍부터 생활전선에 뛰어 들어 생활해 왔으며 현재 여유가 없는 것은 사주자체에 축 현(아) 슴 충돌 치고 멀리 맞는 것과 한지는 것을 이루니 역동적이고 실속이 적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 현재 회사에 있는 것도 복지부동 하고 시간 내서 피아노를 취미로 배우면서 정서를 바꿔 보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9월 11일(목) 9월 18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기분 좋은 일 생기니 기대하라. 60년생 업절결이 추심연물이 된다. 72년생 직장인은 상사다운 행동하도록 신경 써라. 84년생 모임에 가면 재미 만끽한다.

소: 49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61년생 무리한 계획은 빨리 접어라. 73년생 일말말말해진 상사가 정리다. 85년생 새로운 일에 재미가 붙어 능률이 쑥~

호랑이: 50년생 생각도 못한 근심 조심~ 62년생 한 발 앞선 센스 덕을 본다. 74년생 상황이 바뀌어도 지금 그대로 할 것. 86년생 그대의 공은 누구도 내신할 수 없다.

토끼: 51년생 환자는 병세가 호전된다. 63년생 책임을 이젓사람에 떠넘기지 말라. 75년생 버는 만큼 지출도 늘어난다. 87년생 나만의 피난처가 생겨 여유만만~

용: 52년생 조조한 행동은 손해 부르는 법~ 64년생 가끔은 목소리 높여 존재감 보여줘야 한다. 76년생 돈 문제 딤 엿히지 말라. 88년생 더블데이트 할 일 생긴다.

뱀: 53년생 지나가 희소식 전한다. 65년생 선할의 군살을 빼도록 노력할 것. 77년생 조직의 이당쇠 역할에 박수가 쏟아진다. 89년생 못이땅해도 상사 따라야 편안~

말: 42년생 급해도 극단적 결정 삼가라. 54년생 뜻밖의 공돈이 생긴다. 66년생 부동산은 호가는 커지지만 거래는 요지부동~ 78년생 실적부담에 스트레스 쌓인다.

양: 43년생 배우자 칭찬에 기분 상승한다. 55년생 배우자와 티격태격 말라. 67년생 자영업자는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79년생 구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라.

원숭이: 44년생 사람 많이 만나도록 노력할 것. 56년생 더 이상 반대할 수 없는 제안 받는다. 68년생 해야 할 일은 자발적으로 할 것. 80년생 적당한 립서비스가 필요하다.

닭: 45년생 환절기 지나지만 흠이 된다. 57년생 논란 있어도 무시 알고 정면 돌파하라. 69년생 앞장 선 일은 성과가 좋다. 81년생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

개: 46년생 고집은 적당할 때 접어라. 58년생 자손이나 아랫사람에 경사가 생긴다. 70년생 달콤한 말에 속지 않도록 조심할 것. 82년생 쉴 땐 확실히 쉬어야 한다.

돼지: 47년생 돈거래 하면 후회만 남는다. 59년생 흔조할 일은 빨리할수록 이익~ 71년생 곰들이 많은 서서히 성과 나타난다. 83년생 비난이 두려워도 입을 닫지 말라.

류현진, 에이스 잡는 에이스 노린다

13일 샌프란시스코전 15승 재도전… 17승 범가너와 상대

류현진(27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왼쪽 사진)이 상대팀 에이스를 상대로 에이스의 자격을 검증받는다.

류현진은 13일 오전 11시 15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AT&T파크에서 열리는 샌프란시스코와의 방문 경기에 선발로 등판한다. 7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를 상대로 15승을 노렸지만 6⅓이닝 2실점으로 호투하고도 아쉽게 승수를 쌓지 못했다.

류현진은 1승을 더 쌓는다면 15승으로 에이스급 투수의 대열에 오를 수 있다. 14승(6패)으로 지난해와 같은 승수(14승 8패)를 챙긴 그는 메이저리그 데뷔 후 최다승 달성도 동시에 노린다.

그러나 상대는 만만치 않다. 다저스와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를 다투는 전통의 라이벌이다. 류현진은 지난해 정규경기를 포함해 총 9차례 샌프란시스코전에 등판해 4승 3패, 평균자책점 3.40을 기록 중이다. 올해는 3경기에서 2승 1패, 평균자책점 5.40을 기록했다.

샌프란시스코는 류현진을 상대할 선발로 에이스인 매디슨 범가너(오른쪽)를 예고했다. 범가너는 올 시즌 17승 9패로 다저스의 클레이튼 커쇼의 뒤를 이어 내셔널리그 다승 2위를 달리고 있다.

류현진은 범가너와 두 차례 상대했다. 지난해에는 패전의 쓴맛을 봤지만 올해는 승리를 거뒀다. 4월 18일 원정경기에서 류현진은 7이닝 4피안타 볼넷 1개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반면 범가너는 4⅓이닝 2실점하며 패전투수가 됐다.

그러나 범가너의 기량은 시즌 초와 달리 절정에 올랐다. 8월 22일 시카고 컵스전 이후 4연승을 달리고 있다. 평균자책점 3.02에 199개의 탈삼진을 기록 중이다. 다저스 타선이 공략하기 쉽지 않은 상대다.

다저스는 샌프란시스코와 2.5게임차로 서부지구 선두를 지키고 있다. 13~15일 열리는 샌프란시스코와의 3연전 결과에 따라 지구 1위를 굳힐 수도, 내줄 수도 있다. 류현진의 뒤를 이어 잭 그레인키(14승 8패)와 클레이튼 커쇼(18승 3패)가 차례대로 선발 등판한다. 간판 투수를 쏟아부어 총력전을 펼친다.

다저스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류현진이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1승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유순호기자 sunn@metroseoul.co.kr

진종오 34년 만에 세계신기록

세계사격선수권 개인전 첫 금메달

한국 사격의 간판 스타 진종오(KT 사진)가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절정의 기량을 뽐냈다.

진종오는 9일(현지시간) 스페인 그라나다의 후안 카를로스 1세 올림픽 사격장에서 열린 제51회 세계사격선수권 남자 50m 권총 본선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60발 합계 583점을 쏜 진종오는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알렉산드르 멜렌티예프(소련)가 세운 종전 세계기록 581점을 34년 만에 경신했다.

진종오는 2009년 4월 창원에서 열린 월드컵 10m 공기권총에 이어 두 종목에서 세계기록을 보유하게 됐다. 동시에 세계선수권 개인전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는 기쁨도 맛봤다. 2010년 뮌헨에서 열린 세계선수권에서는 개인전 금메달 없이 50m 권총 단체전 금메달, 10m 공기권총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진종오는 결선에서 2위를 달리다가 16번째 발에서 9.7점을 쏘며 팡웨이(중국)에 역전했고 이후 1위를 지키며 192.3점으로 우승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날 50m 권총 단체전 은메달에 이은 두 번째 메달이다.

/유순호기자

히딩크 매직 어디 갔나

네덜란드 감독 복귀 2연패

마법 같은 승리로 지도력을 인정받아온 거스 히딩크(사진) 감독이 연패로 체면을 구겼다.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네덜란드 축구 대표팀은 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의 스타르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 유럽축구선수권(유로 2016) 예선 조별리그 A조 1차전 체코와의 원정 경기에서 1-2로 패했다. 네덜란드 사령탑 복귀전인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0-2로 진 데 이어 2경기 연속 패배다.

히딩크 감독은 2014 브라질 월드컵까지 팀을 성공적으로 이끈 루이스 판 할 감독의 뒤를 이어 16년 만에 네덜란드 사령탑으로 돌아왔다.

네덜란드는 전반 22분 보리크 도즈랄(스파르타 프라하)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10분 스테판 더프레이(라치오)의 동점골로 승부를 되돌렸다. 그러나 후반 46분 수비수의 실수를 놓치지 않은 바츨라프 필라르(브라이부르크)에게 결승골을 내주고 패했다.

한편 H조 예선에서는 이탈리아가 노르웨이에 2-0 승리를 거뒀고 B조에서는 웨일스가 가레스 베일(레알 마드리드)이 2골을 넣는 활약을 앞세워 안도라를 2-1로 꺾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키프로스에 1-2로 졌다. 아이슬란드는 터키에 3-0으로 승리했고 크로아티아도 몰타를 2-0으로 꺾었다.

/유순호기자

이승엽 최고령 30홈런 쐈다

삼성 라이온즈의 이승엽(38 사진)이 최고령 시즌 30홈런으로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 새 기록을 추가했다.

이승엽은 10일 창원 마산구장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0-2로 끌려가던 6회초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우월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렸다. 상대 선발 에릭 해커의 시속 128㎞짜리 포크볼을 받아쳤다.

이승엽의 나이는 만 38세 23일이다. 이는 한국 프로야구 역대 최고령 시즌 30홈런 기록이다. 종전 기록은 2001년 롯데 자이언츠의 펠릭스 호세가 보유한 만 36세 3개월 17일이다.

이승엽은 이 외에 개인 통산 최다(388개), 단일 시즌 최다(2003년 56개) 홈런 기록, 최다 홈런왕 달성(5회) 등 한국 프로야구 홈런계의 굵직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유순호기자

프로축구 전적 10일

전남	0	1	포항
상주	1	2	제주
경남	0	0	인천
성남	1	2	서울
수원	2	0	울산
부산	1	1	전북

프로야구 전적 10일

■목동

한화	000	000	002	2
넥센	011	100	10X	4

■광주

LG	050	430	000	12
KIA	010	120	011	6

■사직

SK	010	021	010	5
롯데	212	103	110	11

■마산

삼성	000	001	003	4
NC	000	200	000	2

처음
그 부드러운
느낌처럼
부드러운 소주